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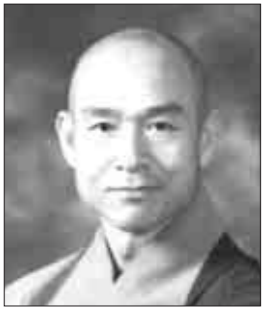
enlight



개교 103주년 기념 축하

이사장 기념사 총장 기념사

힘찬 전진을 위하여



신록의 푸른 봄빛으로 가득한 오늘, 우리 동국대학교 개교 10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의 영광을 함께할 수 있기까지 학교의 건립과 증흥을 이룩하신 불교계 선각들의 지극한 서원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우리역사에 족적을 남기신 역대의 모든 동국가족들에게도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동국백년의 역사는 영광과 시련, 도전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때는 우리사회의 대학교육을 선도하는 명문사학으로의 자기위상을 드날리기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환

경과 대학교육 여건변화의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서 동국대학교의 위상이 위협받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내외의 교육환경 속에서 대학운영의 효율성 재고와 교육 경쟁력 강화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영교 총장님은 조직개편과 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동국대학교의 신 경영체계를 의욕적으로 구축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신 경영체계 하에서 교육·연구를 위한 새로운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재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대학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민족의 대학, 특색 있는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도와 틀이 아무리 획기적으로 변화하더라도 지난시기 누적되어 있는 의식과 관행을 벗어나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일구어내지 못하면 질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오는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다시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준

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없습니다.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영광 역시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동국인들은 지나온 100년의 발전을 기반으로 새 역사의 도약이라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09년 우리는 동국 중흥이라는 기회 앞에 서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수·학생 모두가 묵묵히 전진하는 수행자적 웅망과 더불어 중·재단·동문 여러분의 화합과 단결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화합과 단결의 기운이 성숙되고 모든 동국가족이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동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개교 이래 내외의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와 애교의 일념으로 동국의 오늘을 있게 한 모든 동국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열성적인 성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동국대학교와 그 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 영 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안일과 구각 탈피해 합심협력 필요한 때



오늘 우리 동국인 모두가 103년의 역사를 자축하는 거룩한 꽃다발을 서로의 가슴에 안겨주는 즐거움이 5월의 향기로운 만화방창과 여의합니다.

교육국국의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교육에 따라 우리 동국에서 양성된 많은 인재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동국의 정신을 구현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의 핵심적 역할로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광과 자긍심의 가슴 벅찬의 한 자락을 풀이켜 회고해보건대, 진정 우리 동국의 지난 역사가 개교 백두에 큰 뜻을 모으신 선각들의 고귀한 마음을 계승하는데 지고지전의 노력을 다했는지의 자

문자답에는 흔쾌한 심정일 수 없습니다. 미처 다 이루지 못한, 또 발전적으로 지켜 내지 못한 아쉬움의 그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이러한 회한을 환기하는 것은 동국의 새로운 역사 창조가 절실하다는 호소의 단초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 대학들이 위상의 강화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탁월한 인프라의 구축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의 치열성은 우리 동국이 물리적 역사와 전통에 의존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 전향적 경영마인드의 실현과 제반 제도의 개혁 없는 새로운 대학 전통을 구축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새 역사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주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안팎의 자성입니다.

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장엄한 순례의 새로운 한 세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근자에 들어, 고객만족의 경영, 성과평가제 실시, 상시정원관리시스템 적용 등 획기적인 제도 개혁과 산학협력관과 기숙사의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보다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은 아직도 부족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의 파장을 수용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아쉬운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일과 구각의 탈피를 위한 쇄신의 몸짓으로 새 역사를 일구겠다는 신념을 희석시키는 여하한 회의와 불신과 외면은 통렬하게 반성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동국인은 지나온 한 세기의 역욕에 더 이상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소명을 받아 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새로운 동국의 새 역사를 써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합심협력으로 총력 매진하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오 영 교
동국대학교 총장

총동창회장 축하

동국사랑 정신, 하나로 모을 때



아래로는 뭇 증생을 교화시켜 이 땅에 불국정토를 건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1906년 우리 동국대학교를 창학하였습니다. 민족의 개화기로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 4.19혁명과 불평등한 한일협정 반대시위 등 정치적 격동의 시대를 겪고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이어져 오는 100여년 동안, 우리 동국인들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정진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민족사의 위기를 주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선두에서 서서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 20만 동국인은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자부합니다. 이 전통을 21세기 통일 한국의 미래에도 계승 발전시켜, 세계 인류의 공영에 크게 이바지 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웅비하는 꿈을 실현시켜야 하겠습니다.

동국인 여러분! 우리 총동창회 20만 동국인은 동국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모

여,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의 안식처인 모교와 함께 세계 속의 동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교와 재단은 동국의 특성을 살려 전략적 발전 방향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동국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재학생 후배들은 찬란한 꿈을 가지고 선진 한국의 동량재로서, 선결조건인 인격도야와 학문연마에 용맹정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불변하는 현재의 단순한 배경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을 설계하는 시금석으로, 앞으로 개교 200주년, 500주년이 되면, 동국인들은 다시 동국의 역사 속에서 새로이 피어날 것이며,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와 같은 동국인임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국학원 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교 총장님을 위시하여 교수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국인 하나하나의 심중에서 발현된 동국사랑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리 동국은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무궁한 동국의 번영을 축원합니다.

전 순 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축하

개교 200주년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며



다짐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그로부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너나없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숨가쁜 시간 속에서 맞이하게 된 우리대학 개교 103주년!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구성원간 컨센서스가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외부 요인으로서는 대학사회마저도 위축시키기에 충분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대다수 구성원들이 보여줬던 동국 업그레이드를 향한 각고의 노력들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정량 평가에 의해 현재의 대학 서열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고 소위 일류대학이라는 소수 상위권 대학들이 시

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몇몇 경쟁대학들은 막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이미지의 탈바꿈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도 그에 못지않은 저동적인 도전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어낸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국의 저력을 감안할 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음에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불교계 선각자들의 건학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103주년을 맞이하게 해 준 과거 선배님들에 대한 고마움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대학의 개교 103주년을 축하하고, 미래의 후배들이 우리 대학의 200주년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노동조합원 모두는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고 싶은 대학, 머물고 싶은 대학,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매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는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건학 103주년을 구성원 모두와 함께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동국가족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 충 희
동국대학교 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총학생회장 축하

다양한 가치가 숨쉬는 동악으로



넉넉한 동국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동국인들의 역사도 이제 103년을 맞이했습니다. 선배들이 지키고 가꾸어왔던 동국의 학풍과 전통이 시작된 개교 기념일을 41대 총학생회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열면 토론도 벌어보고,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하는 즐거움이 어떠한 것인지 느껴보기도 하고, 동기들과 함께 밤새도록 사람내음 나는 이야기를 나누며 술도 마셔보았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안타까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 폐교에 반대하며 애원했던 학우들이 매몰처계 징계를 당해야했던 상황, 등록금을 동결하며 고통을 분담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계절학기 수강료가 일방적으로 인상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학생활은 동악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선배들, 저와 함께 동악의 역사를 기록해왔던 동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를 이끌어갈 후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쉬움 보다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동국인 여러분, 저는 우리의 대학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학생에게 애정을 갖고 학문의 길로 안내해주시는 교수님과 정진없는 학사행정에 지쳤지만 밝게 웃으며 학우들을 맞는 직원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국을 빛내고 어느 대학보다 멋진 곳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등록금이 없어 휴학해야 하고,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장학금을 위해 경쟁해야 하며, 등록금에 보태기 위해 공부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좌절 하지 맙시다. 일시적인 사회적 수요에 맞춰 동악의 교육 전통과 학풍이 부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회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맞춤형이고 다양한 가치가 살아 숨쉬는 멋진 동악으로 만듭시다. 창조성의 뿌리인 학문의 다양성을 지키고, 개인적인 경쟁보다는 함께 하는 연대를, 개인적 문화보다는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를, 그리고 그 속에서 은은한 향기를 내는 동국대만의 화풍을 만들어 갑시다. 그곳에 41대 총학생회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학우들이 희망입니다.

신 동 욱
동국대학교 제41대 총학생회장

2009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일정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www.dongguk.edu

대 학 원 명	홈 페이지 주소	전화 번호	모 집 단 위 및 학 과	원 서 접 수 일 자	전 형 일 시
일 반 대 학 원	http://ipsi.dongguk.edu	02-2260-3962	모집요강 참조	5. 13(수)~5.19(화)	2009. 5. 30(토)
경 영 전 문 대 학 원	http://mba.dongguk.edu	02-2260-8885	석사과정 : 모집과정 / General MBA (full-time/evening), CO-MBA, Entrepreneurship-MBA, 재무분석사 MBA	5.18(월)~5.30(토)	09.06.13(토)10:00
영 상 대 학 원	http://dic.dongguk.edu	02-2260-3763	박사과정 : 모집학과 / 문화콘텐츠, 영화영상, 멀티미디어 석사과정 : 모집학과 / 문화콘텐츠, 영화영상, 멀티미디어, 공연예술	5.11(월)~5.18(월)	09.5.23(토)10:00~
불 교 대 학 원	http://gsbs.dongguk.edu	02-2260-3097	석사과정 : 모집학과 / 불교, 불교사회복지, 생사의례, 불교문화콘텐츠(다도), 명상심리상담학과	5.18(월)~6.5(금)	09.06.11(목)14:00
법 무 대 학 원	http://gslaw.dongguk.edu	02-2260-3742	석사과정 : 모집학과 / 법학과 / 모집전공: 모집전공 / 문화예술법무전공,법률실무전공,미국법무전공	5.11(월)~5.22(금)	09.5.29(금)10:00~
행 정 대 학 원	http://gspace.dongguk.edu	02-2260-3103	석사과정 : 모집학과/ 행정학과, 안보·북한학과, 공인행정학과, 복지행정학과, 부동산행정학과 특별과정 : 부동산 최고위과정 / 최고위 부동산경영매과과정, 최고위 치안정책과정, 최고위 CEO 이커테미	5.11(월)~5.20(수)	09.5.23(토)13:00~
교 육 대 학 원	http://gsedu.dongguk.edu	02-2260-3111	석사과정 교육학과 3개전공, 교과교육학과 18개전공	5.11(월)~5.22(금)	09.5.30(토)14:00~
문 화 예 술 대 학 원	http://gsca.dongguk.edu	02-2260-3607	석사과정 : 모집학과 / 문예창작, 연극예술, 불교예술문화, 예술경영, 예술치료 문화예술인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 문예창작, 연극예술, 불교예술문화, 예술경영	5.11(월)~5.22(금)	09.5.30(토)10:00~
언 론 정 보 대 학 원	http://gsci.dongguk.edu	02-2260-3734	석사과정 : 모집전공 / 신문방송, 디지털컨텐츠, 광고홍보, 출판잡지, 인쇄화상 관리자과정 : 모집전공 / 신문방송, 디지털컨텐츠, 광고홍보, 출판잡지, 인쇄화상	5.18(월)~5.28(목)	09.5.30(토)10:00~
국 제 정 보 대 학 원	http://gsiai.dongguk.edu	02-2260-3734	석사과정 : 모집전공 / 정보보호, 사이버포렌식, 영어통번역	5.18(월)~5.28(목)	09.5.30(토)14:00~

자랑스러운 동국인,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는 동국 파워



정치 - 한나라당 구상찬 국회의원 (체육교육 77입학)

“변심 않고 한길만 걸어온 것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이끌어”

을 땀 뒤 “당시 이세기 장관은 중국 출신이 잦았는데 동행하면서 중국 쪽 보좌관들과 인연을 맺게 된 거지 근데 이제 그 보좌관들이 중국 당 서기, 장관 등 고위층으로 모두 올라가서 중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됐어”라며 중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의 국제적인 감각은 대학 때부터 길러졌다. 그는 “방학 때면 무조건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히려려고 노력하고 나가서 웬지 모를 자신감을 얻었다. 그런 국제적 마인드가 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후배들에게 해외여행을 되도록 많이 해 볼 것을 조언했다. 더불어 그는 후배들에게 독서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권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병행하며 책을 많이 읽은 것이 글 솜씨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가 정치에 발을 디게 된 계기도 대학 시절 유네스코 지도교수였던 이세기 교수의 발표문과 인사말을 맡은 데서 시작됐다. 당시 고려대 교수였던 이세기 전 장관은 체육부 장관, 올림픽 위원장, 민정당 원내총무로 여러 자리를

거쳤다. 이에 따라 구상찬 의원도 자연히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국회에 발을 내딛게 됐다. 그는 자신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한 분야에서 변심하지 않고 한길만 꾸준히 걸어온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학부, 대학원 시절엔 교수가 꿈이었지만 보좌관을 하면서 25년 동안 국회의원 한 곳만 바라봤다”며 “모두가 불안하며 다른 길을 찾을 때 좌고우면 없이 한 곳만 보고 맡은 바 직위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30년 동안 그가 보좌한 인사도 이세기, 이회창, 박근혜 셋뿐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실책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든 무조건 부딪쳐 보라”며 힌 주어 말했다. 103주년을 맞이한 학교에 대해선 “4·19혁명과 같이 우리대학은 크고 작은 대한민국 역사의 줄기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103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학교, 교수, 학생이 3위 일체가 되어 세계와 숨쉬는 동국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며 축하의 인사를 남겼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심팩(SIMPAC)의 최진식 회장은 우리 대학 무역학과 (77학번) 출신으로 현대 건설, 동양 증권을 거치며 당시 연봉 1위의 셀러리맨으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2001년, 셀러리맨 생활을 그만 두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쌍용정공을 인수해 기업을 흑자로 전환시켰다. 그는 “기업에 종사하는 것 보다 내 주도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자기만족하고 성취감, 희열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다”며 안정적인 직장에서 박차고 나와 사업가로 변신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인제가 유일한 자원인데 학생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 하지 않으면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세계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홍콩과 싱가포르

경제 - 최진식 심팩 회장 (무역 77입학)

“SKY출신 이기려면 적어도 10~20년은 더 노력해라”

포트 학생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 청년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는 이어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호기심, 국제적인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르고 경쟁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최진식 회장은 우리 대학 TIME 동아리 회장을 한 경력이 있다. 그는 “동아리에서 매주 한 번 읽었던 TIME지가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안목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며 학교 생활을 추억했다. 그는 요즘도 밤 10시 마다 블룸버그 (bloomberg) 뉴스를 시청하며 세계정세를 파악한다. 특히 우리 대학 후배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우리 대학보다 안 좋은 대학이 더 많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 노력해라 공부 부족했던 고등학교 3년을 보상하려면 사회에 진출해서도 적어도 10~20년은 노력해야한다. 그러던 언젠간 SKY출신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기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그는 “사회에 유명 인사 비율 중에 동국대 출신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제 경쟁력을 가지지 않은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듯이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며 “재단인 조계종은 교육 사업을 할 건가 말 건지 마다 불름버그 (bloomberg) 뉴스를 시청하며 세계정세를 파악한다. 특히 우리 대학 후배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우리 대학보다 안 좋은 대학이 더 많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며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예술 - 배우 이미연 (연극영화 90입학)

“베테랑 배우? 아직도 한참 걸어가고 있는 배우일 뿐”

“예쁘다, 연예인인가?” 늘 학생들의 눈길을 끌던 여대생이었지만, 결코 화려하진 않았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무엇 하나도 수수한 옷차림의 여느 학생다운 모습이었다. 굳이 티를 내지 않아도 예쁘기만 했던 순수한 여대생, 여배우 이미연의 학창시절은 그런 모습이었다.

웃어 보이는 이미연 동문. 그런 까닭인지, 부위에서 그녀는 “지나친 완벽주의자”라 불리기도 한다고. 다시 한 번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던 교내에서 하는 연극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다고 한다. 연극을 준비하며 학생들과 연기로 호흡하는 시간이 그녀도 꼭 한번 함께 해보고 싶다고.

이제는 어느덧 ‘베테랑 배우’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그녀다. 훗날 배우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조차도 그녀는 아직 숙스럽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저도 좋은 연극자가 되고자 한참 걸어가 있는 배우일 뿐”이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다.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연극자가 되고 싶은지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만의 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학교에서 배우는 연기 관련 수업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야말로 명품 연기를 보여주시는 학



교 선배님들의 존재감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배우로서 연기해요” 그녀는 지금껏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자부심을 후배들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있다. 우리대학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일반 대중들의 머릿속에서는 베테랑 여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녀. 앞으로 다가올 그녀의 화려한 컴백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문학 - 신경림 석좌교수 (영문 54입학)

구름, 바람 ... “나를 만든 것은 동국이였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우리가 항상 중문으로 등하교할 때마다 마주치는 시비에 새겨진 위 문구의 창작자, 중,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인, 민중의 고달픈 삶을 빼어난 서정성으로 표현하는 문인...

다양한 수식어를 지닌 그는, 최근 호암 예술상을 수상하며 동국을 빛내고 있는 신경림 시인이다. 신경림 시인은 우리대학 영문학과 동문이며, 문단에서 영향력 있는 동국인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 문단에서 활약 중인 그를 만나 그만의 동국스토리를 들어보았다.

그에게 재학시절의 모습을 묻자 그는 “나는 그다지 모범생은 아니었어”라고 토로하며 “그러나 문학을 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찾아다니던 학생이었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학시절 동국문학모임이라는 문학 동아리에서 20여명의 문학도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며, 시를 쓰는 연습을 했다고 한다. 이는 그가 시인으로 등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모임 후에는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문학에 대해

끊임없는 대화를 나눈 것도 추억이라며 웃으며 이야기했다. 또한 “동국문학모임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는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동회(인사동 동국대 모임)’라는 모임을 통해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국이란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은사님에 대한 추억도 떠올려 이야기했다. “내가 학교 다닌 때에는 캠퍼스에 법당밖에 없었어. 판자집에서 수업이 이뤄졌는데 불구하고 열정적인 교수님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지”라고 말했다. 신경림 시인은 희곡작가이자 전공교수였던 이근삼 교수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만큼 추억도 많다고 밝혔다. “은사님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하는 시험에 내가 한글로 작성해도 글을 기가 막히게 썼다며 높은 점수를 주셨지. 그 덕분에 내가 장학금도 두어번 받았지”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신경림 시인은 자신이 시인이 될 수 있었던 원천이 동국대에서의 배움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동국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했다. “그 당시에는 문학하면 동국이었지! 작년 신춘문예를 후배들이

평정했을 때도 역시 동국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명문사학이었던 우리대학이 점점 침체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일한 불교학교인 우리대학이 마음을 열고 불교의 마음을 모아 재기해야 한다는 그, 더불어 그는 후배들 역시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의 위상을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을 열심히 쓰는 것이 차후 계획이라고 밝히는 신경림 시인. 동문, 시인, 교수로서의 또다른 도약을 기대한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신규 학생증 도입에 따른 중앙도서관 이용 안내

- 사용 시기** : 2009. 5. 4(월)부터
- 주요 변경사항**
 - 가. 기존 학생증 및 임시바코드(구학생 및 신/편입생용) 사용 불가
 - 나. 도서관 출입, 도서 대출, 열람실 및 멀티미디어실 좌석배정기 사용시 신규 학생증 및 신학년 바코드로만 사용 가능
 - 다. 도서관 로그인시 신학년으로만 가능(구학생 사용 불가)
 - 라. U-drims와 도서관 학사 이용자정보 연동으로 이용자 정보 자동 경신(패스워드 동일)
- 신분별 ID사용 안내**

구분	기간	장소	장소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신청자)	신규 학생증	경주학생 포함	
졸업생, 수료생(미신청자)	기존 학생증	신학년 바코드로 사용 가능	
전일교원 및 직원, 전일연구원	특별열람증(출입/대출)	기존 카드 계속 사용 가능	
비전일교원 및 직원, 연구원 등	신규 신분증	초빙교수 포함	
	기존 학생증	신규 특별열람증 발급	
	특별열람증(출입/대출)	기존 카드 계속 사용 가능	

- 기존 학생증 이용자 신학년 바코드 배포**
 - 가. 대상 : 기존 학생증 이용자
 - 나. 방법 : 기존 학생증에 신학년 바코드 부착(기존 학생증 지참 필수)
 - 다. 일정

구분	기간	장소	장소
1차	4.27(월) ~ 5. 7(목)	대출반납실 앞 로비	명단 홈페이지 게시, SMS 발송
2차	5. 4(월) ~ 5. 7(목)	대출반납실 앞 로비	5.1일까지 신청자에 한함
상시	5. 4(월) ~	대출반납실 민원데스크	

- 신규 특별열람증(출입용/대출용) 안내**
 - 가. 발급 대상자
 - 기존 학생증 미소지한 특별열람증 신규 신청자
 - 기존 학생증 이용 특별열람증(출입/수료생-신학년 바코드) 재발급자
 - 도서관 별도 ID의 특별열람증 재발급자
 - 신규 학생증이 발급되지 않는 학생(시간제학생, 교환학생 등)
 - 교직원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는 비전일교직원(감사, 조교 등)
 - 나. 내용
 - U-drims의 학번 및 교직원 번호를 유지함.
 - 신규 특별열람증 신청시 증명사진(원본이나 파일)이 필요하며, 미지참시 웹카메라로 즉석 촬영하여 카드 발급시 사용함.
 - 특별열람증 이용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며(졸업생은 해당학기까지만), 연장지 가능함.
- 문의처** : 중앙도서관 대출반납실 ☎ 2260-8623-4)

학사지원본부

경영학과 50주년 기념식 개최 및 “동영50 장학회” 발족

동국경영인들이 동국대학교에 터 잡은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경영학과를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자랑스러운 선배님, 고마우신 내외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영학과 50년사 발간과 “동영50 장학회”의 발족을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동국경영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겠습니다.

- **현판식** : “동영50 강의실”
경영대학 2층 MBA202호
2009년 5월 15일 오후 6:30~6:40
- **기념식** : 2009년 5월 15일 오후 7:00~9:30
상록원 3층 교수식당

경영학과 주임교수 최경규 · 경영대학장 유창조

동서사상연구소 논문 모집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에서는 연구소 학술지 『철학·사상·문화』 제9호에 실릴 논문을 모집합니다. 논문 원고는 철학, 사상, 문화에 속한 영역으로 제한하며,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제출일시 : 2009년 5월 20일(수) 까지
 - 원고 제출방법 : 다음의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choi@dongguk.edu (동서사상연구소장 최인숙 교수)
 - 원고 명기사항 : 투고자의 성명(한글/영문), 소속, 주소, 전화번호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원고 제출 관련사항 : 동서사상연구소 홈페이지(http://ins-ewt.dongguk.ed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채택된 논문은 2009년 7월 31일 발간 예정인 『철학·사상·문화』 제9호에 수록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서사상연구소(교내 8838)/ 연구소 조교 박영희(019-629-1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사상연구소

정각원 <무료강좌> 위빠사나 수행안내

- 일시** : 5월 12일(화) ~ 5월 14일(목) 오후 6시 ~ 8시
- 장소** : 정각원 법당
- 조명법사** : 마가스님(천안 만일사 주지, 중앙대 초빙교수)
- 참석대상** : 누구나 가능
- 강의과정** :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됨
- 참여방법** : 신청서는 따로 받지 않으며, 강의 당일 10분전까지 도착
- 준비물** : 편안한 복장
- 문의처** : 정각원 사무실 2260-3017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중국당대 최고 대영화면연출 전문

- 장진전 감독 초청강연**
- 일시** : 2009년 5월 11일 오후 4시
- 장소** : 문화관 2층 제 3 세미나실
- 대상** : 동국대학교 재학생 모두
- 주최** : 영상미디어대학/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영상미디어센터
- 초청강사 간략 소개**
 - 최근 중화권에서 제작된 대작영화 영웅, 황금갑(장메모), 적벽대전(오우상), 색계(이안), 패왕별희(첸카이게) 등 당대 최고의 감독들과 20여년간 영화를 촬영해 온 감독.
 - 미국을 비롯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많은 대작 영화들을 촬영하면서 중국 측의 감독 역할.



개교 103주년 기념 - 총장과의 대담

“100년의 전통을 발판 삼아 다시 떠오르는 동국이 되자”

학내 구성원의 단결이야 말로 동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번 총장과 동대신문 편집장의 대담은 우리대학 개교 103주년을 맞이해 총장의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함께 돌아보며, 아울러 지난 103년 동안의 자성과 미래 동국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편집자

참석자 : 오영교

(동국대학교 총장)

정동훈

(동대신문사 편집장)

일시 : 2009년 5월 1일 오후 3시

장소 : 본관 4층 총장실

▲**편집장** = 올해 우리대학은 개교 10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면을 통해 우리대학 구성원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총장** = 우리대학은 이미 역사적으로 백년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권 사립대학 중 역사가 백년을 넘어선 대학은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등을 포함해 몇 개 학교밖에 없다. 백년이 넘는 역사는 그동안 우리대학이 쌓아온 학문적, 사회적 성과와 경험을 의미한다. 우리대학이 사회에 배출한 수많은 인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일구어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대학의 역사에 대해 구성원 모두는 벅찬 자긍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개교 103주년이라는 역사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과거를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변화하는 조직은 큰 발전을 이뤄내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오히려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103주년을 맞이하는 동국인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확실하게 진단을 하고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동국인이 됐으면 좋겠다. 103년의 역사는 소중한 그

역사에서 축적된 경험은 우리에게 크나큰 밑거름이다. 이런 밑거름에서 더욱 성장하여 더 좋은 동국을 만들 수 있는 동국인이 돼줬으면 좋겠다.

▲**편집장** = 총장님께서 고려대를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학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셨는데 학과시절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또 고시 공부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총장** = 나는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것을 이루기 위해 그 한가지에만 몰입한다. 모든 일의 성패는 누가 얼마나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판가를 난다. 군대를 제대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면 중 사회에 나가서 공무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행정고시였다.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절대시간의 중요성이다. 하루 최고 5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나면 공부할 수 있는 절대시간은 19시간이 생긴다. 이 절대시간을 누가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고시 합격 여부가 달라진다. 사람이란 가끔 지치고 마련이다. 나 역시 지칠

때가 있었다. 하지만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일들을 잊을 수 있었다. 미래의 꿈을 그려보는 것인데, 꿈을 그리다보면 동기부여가 된다.

▲**편집장** = 고려대 재학시절에 바라봤던 우리대학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총장** = 동국대 한양대 성대가 같은 순위의 대학이었다. 그중 순위를 뺏자면 학생들이 더 많이 선택했던 대학이 동국대이다. 서울, 연고대가 1순위 대학이라면 2순위 대학에는 동국대, 한양대, 성균관대 정도가 있었다. 물론 2순위 대학 중 동국대가 최우선순위에 들어갔다. 그 당시 고대에 합격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당연히 2순위 대학으로 동국대를 선택했다. 그 만큼 그 당시 동국대는 최상위 대학이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대학의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 그 이유는 다른 대학이 성장했을 때 우리대학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경쟁사회에선 내가 정해놓은 등안 경쟁자는 성장한다. 그 결과 우리대학이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지금까지 걸어 온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왜 우리만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었나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편집장** = 이제 총장님의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총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우리대학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대학이 가장 개혁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정부 중앙행정부처와 기업을 거쳐 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임기의 절반을 보내시면서 느꼈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총장** = 학교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 매력적인 일이다.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든다는 자각은 매력적일뿐만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동국대에서 새롭게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과를 이뤄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공기업이나 행정부 장관을 할 때에 비해서 학교에서의 업무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생기는 일이 너무 힘들다. 공기업이나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때는 구성원들과 의사소통 할 기회가 많아 한 가지 일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는 교수, 학생,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고, 또 구성원들이 단과대, 학과별로 나뉘어져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 학내 구성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기 어려워 종합된 정책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 아쉬웠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토론의 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편집장** = 입학정원관리 시스템을 둘러싸고 독어문화학과 등 학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학정원 관리시스템이 지나치게 시장주의적이고 상업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장** =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인문학을 끝까지 끌고 갈 순 없다. 물론 인문학의 배움의 기회를 막는 것은 잔인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학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질 학문을 발전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실질학문육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편집장** = 대학발전을 위해선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대학의 경우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79% 정도로 매우 높은데, 재정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총장** = 재정확보는 우리대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큰 고민도 그것이었다. 다만 재정확보를 위해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충분한 재정을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어 아쉬웠다.

또, 등록금을 동결하고 나니 모든 학교

사업이 위축되면서 장기적인 학교발전의 재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재정확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동문들을 통한 기부부이다. 작년 기부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모금했고 올해도 그 이상의 기부금 모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학교법인에 소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자산을 이용한 재정확보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학교기업인 동국아트컴퍼니를 통한 수익창출같은 방법도 필요하다. 공연사업을 주로 하는 동국아트컴퍼니는 얼마 전 헌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사업을 개발해 낼 계획이다. 그래서 교육재정을 튼튼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편집장** = 취임하신 이후 강의평가 공개,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입학정원관리시스템 실시 등 여러 개혁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장** =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단과대학별로 하면 단과대학별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쉽게 수렴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대학의 현실이다. 교수와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에 교수들의 출석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며 학생들과의 설명회에서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의사수렴의 공식적인 창구가 열려 있음에도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소통과정에서의 참여는 저조하지만, 정책결정이 이뤄진 후의 비판은 이곳저곳에서 나온다. 구성원들이 정책결정과정이 아닌 의사수렴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

▲**편집장** = 얼마 전 출범한 미래기획위원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미래기획위원회를 발족시키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총장** = 미래기획위원회는 총장에 처음 취임했을 때 세웠던 108프로젝트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장기비전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총장의 임기인 4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전부 실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이 장기적으로 개혁과 변화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서기 위해서 미래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비전과 전략이 필수적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그런 비전과 전략을 학습하고 연구해 결론을 도출하는 기구로 운영될 것이다.

▲**편집장** = 오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200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모집과정**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 모집인원**
학과과정별 각 학과 약간명
- 지원자격**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9년 8월 이전 취득예정자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고사**
- 불교학과(박사과정), 경찰행정학과(석사/박사과정), 경주캠퍼스 불교학과·선학과(석사/박사)는 필기고사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09. 5. 13(수) ~ 2009. 5. 19(화)
전형일	2009. 5. 30(토)
합격지 발표	2009. 6. 9(화) 예정

- 장학혜택**
가. 이공계 대학원 석사/박사 신입생 전원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1학기 1회)
- 단, 교육·연구·실험실습 등의 사무보조 희망자에 한함
나. 본교 출신 학사 또는 일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영산대학원 석사 졸업자 입학금 전액 장학금 지급(3년 이내 진학자)
다. 각종 교외장학 및 조교장학, 교환학생장학, 명진장학, 동국가족장학 등 다수의 장학금 지급
라. <BK21> 세계화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유비쿼터스블류관리연구센터』 및 기타 국가지원 연구프로젝트 등으로 장학 및 연구비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 모집요강 참조
서울캠퍼스입학처입학관리팀 T. (02)2260-8861~4
경주캠퍼스입학처입학관리팀 T. (054)770-2031~4

입 학 처

2009학년도 후기
외국인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 모집인원**
학과과정별 각 학과 약간명
- 지원자격**
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나. 국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1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하고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9년 8월 이전 취득예정자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고사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09. 5. 11(월) ~ 5. 22(금)
전형일	2009. 5. 30(토)
합격지 발표	2009. 6. 9(화) 예정
등록기간	2009. 7. 1(수) ~ 7. 3(금) 16: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 홈페이지(www.ipsi.dongguk.edu) 모집요강 참조
서울캠퍼스국제화추진단 외국인서비스센터 T. (02)2260-8981~2

국제 화 추 진 단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전문가 과정 모집

제1기 브랜드관리 전문가 과정 모집

- **타 단과과정과의 차별점**
 - 교육부인가 정규 MBA스쿨 내에 있는 최초의 브랜드관리전문가 과정(전문성, 신뢰성 확보)
 - 차별화된 강사진 (국내외 브랜드 저명 강사진, USC 박충환 석좌 교수 포함)
 - 풍부한 브랜드 실무 중심 강의 (브랜드 실전 전문가의 현장중심 강의)
 - 브랜드자문 모델 시행(선택가능, 1회 1시간씩(주 2회) 브랜드관련 현업에 대한 자문, 국내 최초)
- **특 전**
 - 동국대 총장명의로의 수료증 수여
 -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MBA School) 브랜드MBA 입학시 우대(등록금 감면 혜택)
- **운영 방식**

기본 모듈	선택 모듈 (수강생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
- 6주 브랜드관리 강의	- 브랜드관련 현업 자문 : 1회 1시간씩 주 2회 (총 12회) 자문
- 수업료 200만원	- 자문료: 수업료의 별도로 100만원
- 강의 일정	- 자문 일정: 자문교수와 협의하에 자유롭게 결정
화요일(19:00 - 21:50)	(예. 화요일,목요일 18:00-19:00)
목요일(19:00 - 21:50)	

- **모집 요강**
교육대상 : - 기업체의 브랜드, 마케팅, 광고홍보 관련 부서 종사자
- 광고, 디자인,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등 전문업체 종사자
- 브랜드관련에 관심이 많은 대학 졸업자 및 대학원생
교육기간 : 2009년 6월 9일 ~ 7월 16일, 주2회 (총 12회), 매 주 화, 목요일 19:00~21:50
교육장소 : 동국대학교 경영관 201호
선발방법 : 서류심사
서류 제출방법 : http://mba.dongguk.edu/ 에서 '입학지원서' 를 다운로드한 뒤, 이메일 brand@dongguk.edu로 제출
서류 접수기간 : 2009년 5월 31일(일)까지
합격자 발표 : 2009년 6월 2일(화)에 개별통보함
등록 기간 : 2009년 6월 2일 ~ 8일
수료료 납부 : 200만원 (6월 8일까지 납부)
(등록금 납부는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예금주 : 동국대)

문의처 :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브랜드관리전문가과정 담당자
Tel) 02-2260-8885 E-mail) brand@dongguk.edu

정성적 마케팅 조사방법론 전문가 과정 모집

마케팅 정성적 연구조사 분야의 최고 석학(Russell Belk, Eric Arnould)을 초빙, 국내최초 특별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마케팅조사 분야의 최고 프로페셔널이 되십시오.

교육 대상
마케팅 조사회사 및 대기업 마케팅 팀 임직원

교육 기간
2009년 6월 3일 ~ 7월 10일, 주2회(총 10회), 6월 22일 ~ 27일 휴강(Break)
매 주 수, 금요일 19:00~21:50

교육 장소
동국대학교 경영관 2층

서류 제출방법
http://mba.dongguk.edu/quail 에서 '입학지원서' 를 다운로드 이메일 quail@dongguk.edu로 제출

서류 접수기간
2009년 5월 31일(요일)까지

등록 기간
2009년 5월 1일 ~ 6월 2일

수료료 납부
200만원
입학지원사이트 참조(신한은행 가상계좌 온라인 입금)

문의 처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정성적 마케팅 조사방법론 과정
Tel) 02-2260-8884-8885 E-mail) quail@dongguk.edu

특 전
▶ 동국대학교 총장명의로의 수료증 수여
▶ 조사연구분야에 국내최고 권위의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인증서 수여

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신문사 편집장 간담회

위기의 대학사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다

11명의 편집장 등록금, 취업, 인문학 등에 대해 총리와 토론의 장 열어



국무총리와 서울지역 대학신문사 편집장 간담회가 있었다. 지난 달 29일 국무총리 공보실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서 대학신문사 편집장들은 취업 및 행정인턴제,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인문학 위기 등의 질문을 했다. 동대신문은 간담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행정인턴 단기적 일자리 인정, 녹색성장 장기적 일자리 창출”

△서울시립대신문 김은경 편집장 : 행정인턴이 미래에 실무를 체험해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또 다른 계약직을 양산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보는지.

△한승수 총리(이하 한 총리): 행정인턴제는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해주려는 것이다.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에 따르면 행정인턴을 경험한 청년의 85%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행정인턴제는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만큼 단기적이다. 연말이 되면 경기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더라도 취업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신문 송치성 편집장 : 취업률 6~70%된다 고 하셨는데, 때부로 느끼기에 그렇지 않다. 대학원



한승수 총리와 서울지역 대학신문 편집장들

진학까지 취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행정인턴 실제로 잡무에 시간을 많이 쏟는다. 기자들이 발로 뛰면서 느끼는 것은 총리님이 느끼는 바와 많이 다른 듯하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대안 마련했으면 한다.

△한 총리: 총리실의 행정인턴 같은 경우 잡무는 시키지 않는다. 정확히 일을 가르치는 것이 책무라고 본다. 그러나 다른 조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대학을 졸업한 이들의 실업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으면 한다.

△한양대학보 심재환 편집장 : 취업난 극복 정책을 실시하면서 정부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

△한 총리: 우리가 아무리 정책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예측도 불가능하고 외부요인이기 때문에 컨트롤 할 수도 없다. 그런 점 가만해 봤으면 한다. 미디어관계법을 두고 말이 많은데 규제 풀어 청년일자리 늘리는 실업대책이기도하다. 방송, 잡지, 신문 모두 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서로가 가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도 이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규제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칸막이 없고 넓게 봤으면 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완화 추진 소득 수준따라 금리 차등 들 것”

△경희대 대학주부 유영민 편집장 : 학자금 대출이 이번 학기에도 7.8%의 고금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한 총리: 한국고등장학재단이 5월 설립된다. 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1~1.5%를 줄이려고 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7.3%로 맞추려고 한다. 학생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줄이려고 한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이대학보 이영신 편집장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대학생 기초생활수급 대상

자에게 지원하는 ‘미래로 계속 장학금’이 미달됐다. 700억 원의 예산 중 111억 원은 결국 장학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됐다. 현재 정부의 장학금 정책은?

△한 총리: 군대를 가게 되고 학점평균을 넘기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다 보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혜 대상자가 줄었다. 수혜대상자를 2학년까지 확대했다. 예산이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정신적 성장 중요 대학생 독서량 늘었으면”

△동대신문 정동훈 편집장: 대학의 학문이 죽어가고 있다. 철학이 없는 실용학문만이 강조되고 있다. 철학과 등 인문학 관련학과들이 폐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차원에서 인문학 관련 학과 졸업자의 사회적 수요를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한 총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는 것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 안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돼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웰스 트리트의 자본가들이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인 근검, 절약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인격수양, 정신적 성장위해 독서가 필요하다. 대학신문 역할도 그런 것 아니겠나. 성숙한 시민국가는 개개인의 독서량 많아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

△연세춘추 김문현 편집장 : 교육부가 대학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함에 따라 대학들이 공격적 투자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공격적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 총리: 사립대학의 경우에 증권투자라는 것은 대학이 하든, 개인이하든 돈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 그동안 적립금 증원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해왔었다. 그러나 대학들이 적립금을 증원에 투자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돼 받아들인 것이다. 적립금의 50%정도는 증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금 투자관리 지침서라는 것 만들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학진흥재단 예결산 감사하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이 대학에 자율 주려고 한다. 대학정보공시제 통해 투명하게 관리 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 공격적 투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학교의 판단 존중해주려고 한다.

△속대신문 이승현 편집장: 정부는 새로운 정책 화두로 ‘녹색 성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라고 들었다. 지금까지 ‘환경’과 ‘발전’은 계속해서 반비례 관계에 놓여왔다. ‘환경’을 생각하기에 아직 대한민국의 기반이 약하진 않은지,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한 총리: 그동안 우리가 양적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써 이산화탄소 10대 배출국이 됐다. 그러나 이것을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산업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줄일수 있도록 하겠다.

정리 = 정동훈 편집장

입학사정관제도 정착을 위한 멘토링 개최

“꿈만 키웠는데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입학처 주최 17일 자기추천전형 합격 새내기 모임



자기추천전형으로 우리대학에 합격한 새내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처음으로 선보인 입학사정관제도의 보완점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입학처(처장=고유환·북한학)가 지난 17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 1차 자기추천전형 신입생 모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자기추천전형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을 살펴 학교 차원의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앞으로의 자기 추천 전형형을 실시 할 때의 참고자료로 삼기위해 열렸다.

선발자들은 자기추천전형에 대해 대체로 만족했다. 판타지소설 작가로 활동한 이력을 인정받아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전민철 군은 “꿈만 키웠는데 뽑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물리학 과에 입학한 김세일 군도 “다른 전형이었다면 평가받지 못했을 재능을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자신을 뽑아준 우리 대학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에 고유환 입학처장은 “여러분 모두는 오히려 우리 대학이 감사할 재능 있는 인재”라며 “자신감을 가져라”고 조언했다.

학교생활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학생도 있었다. “이전 경력으로 인한 주위의 시선이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자기추천전형 선발인원이 늘어났다고 들었다. 관심이 분산된다면 본인이 느끼는 부담감들도 보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들과 학생들이 그룹별로 모인 인터뷰자리에서는 자기추천전형 준비과정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 다수의 학생들이 준비과정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성적뿐 아니라 인성과 재능까지도 파악하는 학교 선생님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추천전형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과제와도 맞닿아 있었다.

고유환 입학처장은 “자기추천전형은 이전의 입시제도도 다르다. 성적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니만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러한 모임을 자주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입학전형 조연자역할’ 교사자문단 출범

입시정책 변화 속 현장경험 반영위해 ... 온라인 활동예정



입학사정관제도 등으로 급변하는 입시환경 속에서 입학처가 현직 교사들의 도움을 얻고자 고등학교 교사 자문단(이하 교사 자문단)을 구성했다. 교사 자문단은 교육현장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조언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교사 자문단 출범식은 1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출범식에는 고유환 입학처장과 우리대학 입학사정관, 자문단 위촉 교사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사 자문단은 우리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학교의 진학 담당 경험을 지닌 교사들로 구성됐다. 전국 곳곳에서 교사생활을 하는 자문단은 주로 Online으로 활동한다.

자문단은 주로 입학전형요소 개발에 있어서 아이디어 검증, 입학전형요소에 대한 현실적 변별력 검증, 논술 출제방향 및 시행방법, 평가 방법 등을 평가하고 조언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이 날 출범식에서 고유환 입학처장은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로 입학전형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입학전형을 신설·보완할 때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2009학년도 1학기 제2차 강의평가 실시안내

2009학년도 1학기 제2차 강의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실시기간**
2009.5.4(월) 10시 ~ 5.15(금) 24시까지
- 평가문양**
19문항 + (영어강좌 : 3문항) + 권의사항
- 학생참여방법**
홈페이지(서울캠퍼스) - uDrims - 로그인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강의평가관리 - 강의평가등록
- 기타사항**
가. 교내·외 강의생 선발시 참여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나. 모든 해외연수 장학 선발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북미주 총동창회 초청 해외연수, 동국해외탐방, 총무역사 탐방 등
다. 미참여자는 교내 장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우수장학금(1차 또는 2차 미참여자), 강좌별 수석장학(1차 또는 2차 또는 3차 미참여자) 신청 불가
라. 강의평가는 학사행정 및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강의평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강의평가는 uDrims 서버작업관계로 (12시~13시, 20시~21시, 24시~01시)에는 참여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평가에 대한 학생정보는 누출될 수가 없으며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학사지원본부

태양 학생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생 모집

이과대학 창업지원센터에서는 학생창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기부하신 태양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학생창업 지원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명
- 지원자격**
가. 이과대학 소속 대학(원)생(학부 3·4학년, 석·박사과정 학생) 중 총점평균 3.5 이상인 자
나. 학업에 충실한 학생 중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
- 모집분야** : 신에너지 분야, 친환경 분야, IT 분야, 웰빙 분야, 기타
- 지원방법**
이과대학 홈페이지에서 창업 계획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이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심사 및 면접
- 서류제출 마감일** : 2009년 5월 15일
- 신청자 지원역량**
가. 연구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
나. 국내외 연구소 연수비 지원
다. 창업에 필요한 강의, 세미나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태양 학생창업지원센터 · 이과대학

이과대학 3학년 재학생 예비졸업상담 시행

2009학년도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졸업 상담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돕고자 합니다. 3학년 학생은 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학생** : 이과대학 3학년 재학생
- 상담기간**
2009년 5월 18일(월) ~ 5월 29(금) - 10일
- 상담시간** : 09:30 ~ 18:00
- 상담장소** : 이과대학 학사운영실
- 상담 신청방법**
가. 이과대학 홈페이지(http://science.dongguk.edu) 『이과대학 3학년 재학생 예비졸업상담 시행』에 학생들이 가 능한 날짜 및 시간 신청 * 수업 공강 시간에 신청.
나. 접수기간 : 2009. 5. 6(수) ~ 5. 15(금) - 10일간
다. 화요일 그룹 상담신청 가능

* 현재제4 4학년 2학기에 예비졸업사정을 하게 되면 졸업이 수 학점에 작오가 생겼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3학년부터 예비졸업상담을 시행하여 정규학기 졸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과대학학사운영실(☎2260-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 대 학

입학사정관 채용공고

- 채용인원** : 2명
- 지원자격**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급여수준** : 연3,500만원 정도
- 담당업무** : 입시기획, 전형개발, 입학사정, 입시통계분석 및 홍보 등
- 우대사항**
가.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나. 입시업무 또는 관련 연구 경력자
- 채용방법**
1단계 - 서류심사
2단계 - 면접심사(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제출서류**
가. 입용지원서(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온라인 접수
나. 학력, 경력관련 증명서(2차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함) - 면접 심사 당일 직접 제출
- 채용날짜**
가. 공고 : 2009. 4. 29(수) ~ 5월 7일(목)
나. 온라인 접수 기간 : 2009. 5. 4(월) ~ 2009. 5. 7(목) 17:00까지
다. 접수처 : www.dongguk.edu
라. 1차 합격자 발표일 : 2009. 5. 14(목) 유선으로 개별통보함.
마. 최종면접심사 : 2009. 5. 19(화) 예정

*문의처 : 0212260-3968 입학처 입학기획팀

입 학 처

기획연재- 미래사회와 대학 ① 미래사회의 모습

국내·외 대학 간 장벽 무너지고 특형 교육 뜬다

신입생 인구 급격히 감소...가상대학 활성화로 학생 선택권 강화

향후 10년에서 20년 전세계 및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 산업, 사회 등 각 분야에서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교육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대학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에 맞춰 미래 대학의 학문구조 및 인프라 변화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우리대학이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점에 집중해야 하는지 연재기획을 통해 살펴보고자한다.

편집자



▲ 모든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대학은 가상교육을 운영하여 정보를 유통하는 중추기관 역할을 할 것이다.



▲ 미래사회는 첨단기술과 지식산업이 전반을 차지한다. 인공지능로봇산업도 미래사회에 주목받는 분야이다.

글 쓰는 순서

1. 미래사회의 모습
2. 미래 대학의 학문구조
3. 정보화사회에 맞춰 나아가야 할 대학 인프라
4. 미래사회 변화, 우리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학계에서는 미래를 가까운 미래(5년 이내), 중간미래(5~20년), 먼 미래(20~50년), 아주 먼 미래(50년 이후)로 분류하고,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중간미래 이내의 미래를 주요 탐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0~2020년은 중간미래에 해당 하는 시기로,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지식 사회를 구축, 발전시키는 중차대한 시기로 예측된다. 대학은 전형적인 개방체제로서 지식사회 패러다임으로부터 부각되고 있는 환경변화추세를 분석하고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시기에 한국의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인구, 사회, 정치, 기업, 교육면의 환경추세를 살펴본다.

사회·정치 분야의 미래모습

인구 면에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가 크게 변화한다. 2010년부터 청년층은 25% 이하로 감소하고 중장년층은 50%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후 감소폭과 증가폭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대학교육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져 대학의 위기가 도래하나 한편으로는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중요한 인적자원개발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학은 평생학습의 장이 되어 성인학생뿐 아니라 외국의 많은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 성인학습자에게 알맞은 교수·학습방법과 환경,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요원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면에서는 디지털을 매개로 지식이 계속적으로 가속화·고품질화 되는 디지털사회의 특성이 생활 전반에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여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불평등에 따른 정보소외와 함께 대면접촉의 위약으로 인간소외 현상이 나타나 삶의 질이 크게 저하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학내외로 학습중심의 지식·정보DB를 구축, 재학생들의 팀학습 활동을 진작시키는 한편 감성을 풍요롭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감성능력이 길러지고 소속대학에 동일감을 갖게 된다.

정치 면에서는 하이퍼폴리틱스(Hyper-politics, 통신혁명에 따른 정치의 변화양상)의 가속화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하여 선거구와 정당 개념이 희박해지고 투표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하이퍼폴리틱스는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로 이어지고, 이는 생활민주주의로 정착된다. 이는 조직을 열린조직·열린경영으로 전환시켜 조직구성원은 자율성과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학경영도 열린경영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과정에 교수와 행정관리자뿐 아니라 학생의 수월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미래사회 기업과 교육의 변화

기업 면에서는 지식기반기업과 지식기업이 주된 기업이 되어 기업조직은 지식기반 구축을 위해 학습조직으로 전환하고, 기업활동의 많은 부분이 사이버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근무환경도 가상조직,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어 탈 상근제와 탈 사무실근무가 거대추세가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직종이 지식근로자, 대인봉사직, 직접생산직으로 대분류되는 직종통합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인봉사직과 직접생산직도 지식근로자의 특성을 심화시켜야 경쟁력이 발휘되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직업인은 지식근로자에 접근해야 한다. 지식근로는 학습능력을 기반으로 수행되어 기업조직은 학습조직으로 전환한다.

대학도 학습조직을 구축하여 대학구성원의 학습능력을 개발하고 학내 지식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

다. 무엇보다도 교수집단을 학습조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수집단은 학생들의 학습조직 활동을 설계하고 이끌고 평가하여 피드백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역동적인 학습조직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앞으로 각 조직체에서 팀활동을 주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량이 길러지게 된다.

교육면에서 보면 열린교육이 정착되어 제도권 교육과 제도권 밖 교육이 밀착된다. 이에 따라 사회교육기관과 가상대학·사내대학이 크게 부각된다. 대학은 평생교육기능을 수용, 우수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 운영하고 임대하거나 판매함으로써 학생유치와 재정확충을 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학습센터로 자리 잡아야 한다.

선진대학 미래사회 대응 준비

한편, 이미 지식사회에 진입한 선진국 유수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지식사회 대응전략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이를 요약한다.

먼저 모든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인적자원개발 기능이 강화되어 학습계층의 다양화에 따라 학위 프로그램, 전문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특별과정, 성인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 대학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온라인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

이다. 그리고 특화된 미니 대학이 크게 부각되어 소수정예의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대학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대학이 외부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고, 외부기관이 직접 대학 내에서 운영하기도 한다.

대학경영 면에서는 대학행정을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특히 교수의 채용과 업적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대학행정관리직의 대학경영전문가로서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유수대학에서는 대학경영을 전담하는 행정관리직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2010~2020년 한국 대학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우선 교수와 행정관리직은 다양화·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성인계층이 학생집단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므로 성인학습자에게 알맞은 교수·학습관리와 학습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서 교수는 지식전달자가 아닌 지식 제시자·학습과정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므로, 강의전담, 연구전담, 학습프로그램의 개발·운영·평가전담, 실습전담, 상담과 개별지도전담 등 다양한 전문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와 행정관리직 간 분명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수는 각자의 전공영역에서 교수하고 연구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본래 역할에 충실하고, 행정관리직은 교수의 교수·연구·사회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대학개혁 및 발전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학경영전문가로서 정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은 하이테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5~2010년에 제1차 소프트웨어

혁명이 완료되고, 이로부터 개발된 노하우와 2000년 전후에 개발하기 시작한 첨단기술로 인해 2020년경에는 인공지능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은 하이테크 시스템 위에서 대학경영,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및 총체적 질관리체제(TQM: Total Quality Management)를 운영해야 한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병행,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작시키고, 외국대학과의 원격교육과 재학생들의 온라인 재택수업을 강화하여 학습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과정 운영은 혁신되어야 하고, 교수업적평가도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 내용적·질적인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은 반드시 학습조직으로 전환하여 교수와 행정관리직의 팀학습 활동을 진작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교수집단은 스스로 학습조직의 모범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학내 학습조직의 개발, 관리, 조정, 평가와 갱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학습조직문화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 친화적 소양이 길러지고 팀활동 능력이 길러진다. 학생들은 학습조직 활동에 익숙하게 되고, 이는 각자의 분야에서 지식근로자로 성장하는 바탕이 된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면에서 크로스 디시플린 커리큘럼(cross discipline curriculum)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010~2020년에는 전공간, 학과간, 단과대학간, 그리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장벽이 점차 허물어진다. 자연히 기존의 전공이나 학과중심 커리큘럼, 소속대학 중심 커리큘럼의 특성이 희박해진다. 학생은 최소소수의 코어 교양코스와 코어 전공코스를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언제든지 전공을 넘나들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대학만이 재정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선택하는 대학으로 자리 잡게 된다.

미래대학 문화의 변화 필요성

마지막으로 대학문화 면에서 승승관계(勝勝關係, win-win game)가 학내 생활원리로 정착되어야 한다.

교수와 행정관리직은 각자의 분야에서 수월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완성적 엘리트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서로가 이기는 승승관계를 지향,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어 시너지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교수와 행정관리직 간 각자의 전문성에 따른 역할분담은 대학구성원간의 승승관계를 의미하고, 코어 교양코스와 코어 전공코스에 따른 팀티칭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수요원간의 승승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교육과 연구 면에서 교수간의 승승관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대하여 학습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팀워크와 팀학습을 진작시키게 된다.

대학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게 된다. 대학은 지금부터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추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서 발전추세를 추출하여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각 대학의 수월성과 접목시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김길봉
한국미래학연구원 부원장
한성대학교 겸임교수

법학적성시험 대비 여름계절학기 강좌개설 안내 (장학선발)

문과대학 주관 법학공직, 치외(화)적성시험 대비 여름계절학기 특별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개설강좌(총 2강좌, 강좌별 2학점)

- 가. 비판적사고와 논술 연습(Argumentative Essay Practice) - 논술(기초논리학영역 : 김명식교수(동국대 박사수료, 대한교과서 논술팀 강사, 동국대 및 경기대 논리논술 강의, 논술지도사 재직위원 등))
- 나. 논증적 사고특강(Special Lecture for Argumentative Thinking) - 언어이해영역 : 홍성훈교수(동국대 박사수료, 비판적사고와 논술연구회 창립 회원, 동국대 및 경기대 논리논술 강의, 독서지도사 전문강사, 출제 및 감수위원, 논술지도사 재직위원 등)

2. 개설기간

2009.6.22(월) ~ 2009.7.16(목) / 여름계절학기 기간
※ 여름계절학기 정규강좌로 과목당 2학점씩 인정

3. 수업요일 : 주 4일 수업(월, 화, 목, 금), 15일간

4. 수업시간 및 담당교수 :

구분	오전	오후
수업시간	10:00 ~ 12:00	13:00 ~ 15:00
담당강좌	비판적사고와 논술연습 (DEV9005)	논증적 사고특강 (DEV9001)
담당교수	김명식교수	홍성훈교수

5. 수강지역 : 가. 3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나. 신청인원이 20명 초과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강생 선발
1) 논리학 관련 강좌 이수 여부
2) 핵심교양 강좌 전 영역에 걸친 균등 수강 여부
3) 일반교양 강좌 학문 영역별 균등 수강 여부
4) 학점

6. 수강료 : 무료(선발자 장학금 처리)

7. 수강생 선발인원 : 강좌당 20명

8. 강의장소 : 명진관 A206

9. 추진 일정 :

구분	기간	내용	비고
수강신청	2009.5.4(월)~(7(목))		인터넷 신청/방문신청
성적처리	7.16(목)~19(일)	계절학기의 동일	담당교수

※ 신청서를 다룬분야 작성한 뒤 철학과 홈페이지(이 게시판(http://sophia.dongguk.edu))게재 또는 철학과 사무실(법학관102호) 방문 신청

10. 기타사항

가. 성적평가 : A~F 등급평가
나. 강좌는 원리해설보다는 실전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운영
다. 2009년 법학적성시험 일자 확정 : 2009.08.23(일)

※ 세부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0-3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공과대학 Capstone Design 프로젝트 작품 공모전

1. 용도지역 :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학부 재학생(개인 또는 팀)
2. 공모 분야 : S/W 및 H/W 전반
· 응모제한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타 공모전에 기수상 또는 중복 응모한 작품은 출품 할 수 없으며, 추후 밝혀지면 입상을 취소함.
3. 시상 내역

부 분	작품수	시상내역
대상	1	상장 및 상금(100만원)
우수상	4	상장 및 상금(각 70만원)
장려상	6	상장 및 상금(각 40만원)
특별상	1개과목(다작품 제출과목)	상패(과목에 수여)

· 시상식은 응모 작품 수 및 수준에 따라서 시상 편수 일부 변경 가능.
· 1차 신청서는 학과 사무실을 통해 제출.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서 싸인)

구분	일자	제출물
신청서 접수	5월 4(월)~5월 7(목)	신청서 (공대 홈페이지 또는 학사운영실 비치)
1차(서류)심사	5월 14(일)~5월 15(일)	1차 통과자 개별통보(대표자 이메일)
중간 진행보고서 접수	7월 20(일)~7월 22(일)	1. PPT자료(5P 이상) 및 중간 진행 보고서 제출 2. 동종사범(대표학생) 1부.
최종작품 접수	9월 14(일)~9월 16(일)	2. 요약보고서(10P 내외)
2차 심사	9월 19(일)	태모 및 설명(팀원 전원 참석 - 합동생 파악)
시상식 및 전시회	9월 29(일)~9월 30(일)	수상팀 전시장대모 필수

-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또는 학사운영실에서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서 및 작품은 학사운영실로 제출할 것.
- 중간 진행보고서 제출자(팀)(2009. 7.20~22)에 대해서는 대표학생 소속학과에서 H/W, S/W 구분없이 10만원 중간 재료비 지원 함.
- 최종작품 제출자(팀)(2009. 9.14~16)에 대해서는 대표학생 소속학과에서 H/W 40만원, S/W 20만원의 재료비 지원 함.

5. 신청서 및 작품 접수처 : 공과대학 학사운영실 (02)2260-3860, FAX (02)2260-8898

2009년 여름계절학기

"성공 중소기업 CEO 강좌" 개설 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 및 졸업생들의 우량 중소기업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을 일군 CEO를 일일 강사로 초빙하여 다음과 같이 계절학기 교과목을 개설하였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과목명 : 성공 중소기업 CEO 강좌
2. 강의일정 (2009년 여름계절학기 일정과 동일함)
가. 수강신청 기간 : 2009.5.7(목)~5.8(금) / 정정기간(5.14~15)에도 신청 가능함
나. 강의기간 : 2009.6.22(월)~7.16(목), 4주 강의
다. 강의시간 :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전 10:30~12:30
3. 강의내용 : 중소기업 창업 성공기, 중소기업의 비전, 중소기업 입사준비, Q&A 등
4. 초빙 CEO : 2009.5월 중 공지 예정(총13회 진행 : 다양한 직종의 CEO 초빙)
5. 신청자격 : 제한없음
6. 수강인원 : 기본 30명 + 추가 신청자 전원 수강기회 부여
7. 신청방법 : Udrrms 이용하여 수강신청
8. 인정학점/이수구분 : 1학점/자유선택
9. 평가방법 : PF
10. 평가기준 : 출석 및 간단한 레포트 제출 여부(세부사항은 강의계획서 참조5월 중 안내)
11. 수강료 : 없음(중소기업청 지원)
12. 기타
가. 본 과목 취득 학점은 계절학기 최대이수학점에 포함됨
나. 휴학생도 수강신청 및 학점 취득 가능
다. 사전허가를 통한 청강도 가능
13. 문의 : 취업지원센터(2260-3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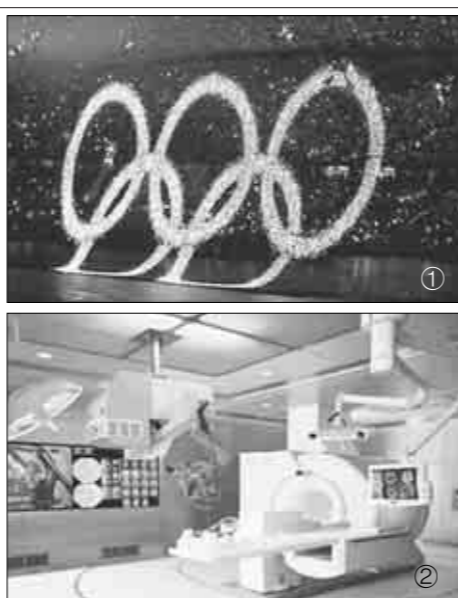
WCU 과제 선정된 양우철 교수 인터뷰

“막대구조 LED ... 다른 구조 보다 훨씬 효율적”

LED 기술에 관한 세계 시장 규모 어마어마해



▲ 양우철 교수는 “LED기술은 조명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된다”고 말했다. ① 베이징 개막식 올림픽 로고 ② 미래의로산업



우리대학 물리학과 강태원, 양우철 교수팀이 ‘나노막대를 이용한 정보디스플레이’에 관한 공동연구 기획으로 제2차 WCU 육성사업에 선정 됐다.

WCU 육성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육성 사업으로 SIC급 논문 게재 수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연구진만이 선정 될 수 있는 사업이다. 강태원, 양우철 교수팀이 신청한 제2유형, 학과 내 통합과 외국인 저명 교수 초청의 경쟁률은 8:1에 달했다.

“나노막대를 이용한 정보디스플레이” 과제는 반도체의 나노 기술(NT)을 정보 기술(IT)에 접목한 것으로 평상시 실생활에서 빛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에게 적용된다. 빛을 밝혀주는 형광등, 자동차 조광등, TV, 신호등, 통신용 신호장치 등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실생활의 제품들이 기존의 조명 기술이었던 LCD방식에서 나노기술을

사용하는 LED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시장 창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생활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밝은 LED 덕분에 우리 삶의 질은 평소보다 더욱 윤택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 대해 양우철 교수는 “정보 기술은 저장, 전달, 처리, 표시 4가지 영역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그 중 우리가 연구하는 부분은 정보 표시(디스플레이)와 정보 전달에 관한 것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보 표시에 관한 기술은 발광 다이오드(LED), 정보 전달에 관한 기술은 광통신용 레이저다이오드(LD)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LED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재미있다. 1나노미터는 10⁻⁹m를 뜻하는데 이 크기는 지구의 지름을 1m로 가정할 때 1nm는 탁구공의 크기와 같을 정도로 매우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나노원자는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물질 성장 연구 장비(chamber)에서 물질을 원자 상태로 만들어 날려 바닥에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쌓아나가는 형태가 막대 모양 형태인 것이다.

하지만 날릴 때 아무렇게나 날린다고 원자가 막대 형태로 쌓아지는 것은 아니다. 막대 형태로 소자를 깔끔하게 쌓아 나가기 위해선 성장 연구 장비(chamber)의 온도, 압력, 원자들의 증착 속도 등 여러 가지 환경 및 조건 등을 충족시켜야하고 유사한 원자들의 층 배열 순서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이 공정은 LED 공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서 연구팀의 기술 역량이 갈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대학 물리학과는 독보적인 기술로 국내 유일의 기술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 기술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때도 건물을 화려하게 밝히는데도 활용 됐다. 이는 중국도 LED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세계 시장규모가 엄청난 LED에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에 매우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 이미 일본은 LED에 관해 대부분의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이 개발하는 막대 구조의 LED형태는 이를 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다른 구조에 비해 발광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태원, 양우철 교수팀은 가시광선보다 자외선(UV)을 활용해 미래 의료나 환경 쪽에 공헌할 전망이다.

양우철 교수는 WCU 수주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번 수주가 우리학교 이공계가 세계적 수준의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연구에 좋은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인 교수들도 우리 대학에 특강하러 오게 되는데 학생들이 공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우철 교수는 “이공계 공부가 힘들지만 앞으로 대접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학부 과정만 마치고 바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학부 과정에선 맛밖에 보지 못한다.

이는 기업에 들어가서도 승진이나 업무처리에서도 능력 부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석사과정이라도 거쳐 제대로 된 학문적 깊이를 갖춰 사회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5> 총, 균, 쇠

이관수 교수의 상식을 뒤집는 책임기



거대한 눈금과 주사위 <총,균,쇠>는 아주 유명하다. 저자인 다이아몬드는 기자들을 위해 한 문장 요약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다.” 반가워한 사람이 많았다.

그는 문명의 발달이 유전적 차이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오히려, 그의 뉴기니 친구들처럼 ‘원시’ 부족 사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문명사회의 성인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똑똑한 편이라고 하는데, 이는 폭력과 살해가 만연한 환경에서는 교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살을 남기기 힘들기 때문이란단. 역설적으로 문명인들이 ‘못난’ 셈이다.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환경은 기후와 식생이다. 신석기 말기 이래 다양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시도들을 통해 결과적으로 농경과 목축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다. 한 발생지에서 시작된 농경과 목축은 기후가 유사한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기 쉽고, 따라서 남북으로 뻗은 대륙들보다는 동서로 뻗은 대륙(유라시아)에서 더 다양한 작물과 가축이 더 널리 퍼졌다.

많은 식량은 많은 인구 나아가 고도화된 분업과 발달한 사회조직(상비군을 비롯한 ‘총’을 포함하는)을 낳는다. 또한 가족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더 많은 전염병을 겪어 더 다채로운 병원균 면역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스페인인들이 아메리카를 침략했을 때 벌어졌던 일처럼 총보다 균이 토착사회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들이 여럿 발생하였다.

“쇠” 즉 기술의 발달도 비슷하다. 그는 기술이 잊히거나 퇴보하는 경우가 의외로 흔하고, 아울러 특정 기술 자체의 전파는 물론 어떤 기술이 있다는 정보가 유사 기술의 재발명을 낳은 경우도 흔하다고 보여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 영향으로 정치적, 문화적인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였던 유럽지역에서 최근 몇 백년간 기술이 더 발달했다고 풀이한다.

이렇게 요약하면 <총,균,쇠>는 윌리엄 맥닐이 <전염병의 세계사>에서 강조한 인간-병원 복합체의 역할에 환경결정론을 섞은 것으로 보인다. 맥닐도 그런 취지로 불평한 적이 있다. 어찌되었던 조류독감과 돼지독감의 시대에 병원균의 중요성은 쉽게 공감된다.

다이아몬드가 환경결정론자일 수 없는 것은 밀바탕에 깔린 사고방식 때문이다. 그는 사람이란 자질한 시도를 벌이기 마련이고, 그런 시도가 일어난 환경도 이리저리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시도의 성공과 실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런 시도가 얼마나 많이 집중되느냐를 중시한다.

빈 강통에 공알 몇 개를 넣고 좌우로 흔들어 보자. 언제 공알이 먼저 강통에서 튀어나올까? 강통을 더 세게 흔들수록, 또 우연히 강통의 높이가 더 낮을수록 공알이 빨리 튀어나온다. 한 공알이 먼저 튀어나왔다고 그 공알이 특별한 자질을 지닌 것도 아니고, 강통의 높낮이(환경차이)가 공알이 튀어 나오게 하는 원동력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설명은 한 나라나 민족의 운명 따위의 자질한 역사의 인과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최소한 몇 천 년에 걸쳐 대륙과 대륙을 비교하는 규모에서 이야기를 끌어간다. 그래서 그가 거론한 개별 사례들에 대한 비판과 찬양은 무력할 뿐이다. 이 때문에 한국어판에 덧붙여진 일본인의 한국기원론 논문은 사족의 발뚱에 불과하다.

교양교육원 교수

“문화산업, 대학과 산업의 인재 수급 불균형 매우 커”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조건 중 으뜸은 ‘창의성’



▲ 발표하고 있는 박웅진 수석 연구원

세계적으로 문화 산업이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콘텐츠 대학교육에서의 산학협력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25일 우리대학 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번 세미나에선 대학과 산업의 인재 수급 불균형이 주요 화제가 됐다. 기업이 원하는 문화콘텐츠 인재와 대학 교육의 간극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박웅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수석 연구원이 제시한 인력 부족 현황에 따르면 기업이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질적 측면의 인력 부족률이 20%에 육박한다.

박웅진 연구원은 “대학에 문화 콘텐츠 관련 사업은 수 없이 많지만 정작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고급 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발전 했지만 탄탄한 스토리로 흥행한 심슨같은 유명 대작이 나오려면 콘텐츠 부분에서 상당한 발전이 필요하다”며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교육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학문 간의 융합이 어려운 현실도 얘기 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에 들어가는 CT, IT 기술과 인문학적 콘텐츠는 성격상 서로가 상대편의 학문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로 조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문 간 협조와 조화를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조병로 경기대 교수는 “정부가 문화 콘텐츠 어느 분야의 인재가 필요한지 정보망 시스템을 갖춘 포털 서비스를 실시하여 대학에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원활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했다.

한편 기업체에선 게임빌 현승호 이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학교가 지속적으로 기업에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기업이 대학에 부탁하고 싶은 인재의 조건 중 창의성을 가장 으뜸으로 꼽았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석보상절』 제23·24 주해 연구 완결판 간행. 15세기 우리 조상의 생생한 입말(口語)로 석가모니의 열반을 읽는다. 동학 어문학의 지적자산! 당시 국어의 모습을 생생하게 반영,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정황을 자세히 묘사, 석보상절 전편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석보상절 제23·24 연구는 저자가 37년 전에 펴낸 석보상절 제23·24 주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축적된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여 내용을 크게 고치고 동국대학교 소장 원본을 원색으로 영인하여 내용 및 구성 면에서 전혀 새로운 책이다. 『석보상절』은 수양대군(西陽大院君)이 세종의 명을 받들어 모후(母后)인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종 29년(1447)에 전 24권으로 간행한 활자본이다. 釋譜詳節(卷二十三, 二十四) 지정연월일: 1970년 12월 30일 총 발: 김숙환(자본) 수 량: 2책(권23·24) 재 료: 지지 소 징 처: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석보상절』은 수양대군(西陽大院君)이 세종의 명을 받들어 모후(母后)인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종 29년(1447)에 전 24권으로 간행한 활자본이다. 동국대학교출판부 www.dgpress.co.kr Tel : (02) 2260-3482~3 Fax : (02) 2268-7851

달하나천강에

복분자주와 SCI

최근 필자의 실험실에서 연구한 복분자주 관련 연구결과가 통칭 회자되는 국제 과학인용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 저널에 출판되었다. 또한 이 사실이 국내 주요일간지에 보도됨으로써 국내 여러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여기서 관심을 끈 대목은 연구의 내용적인 면보다는 국내 복분자주 관련 연구가 최초로 해외에서 발행되는 SCI 논문에 발간되었다는 사실이 약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많은 신문독자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국내 토종 복분자주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해 오면서 어떻게 국제적 논문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냐며 의문을 표시하였다.

논문발간의 시행착오

본 연구는 벌써 4년 전에 농림기술연구과제로 채택되어 연구비 지원을 받았고 그 이후 고창의 한 복분자주 업체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업체의 주요 임원은 본 학과 졸업생이었다. 당시 필자도 복분자주를 국제화시킨다고 하면서 국제논문에 한 번도 소개

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내심 놀랐다. 우선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본교 생명과학과의 성정석 교수를 찾아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흔쾌히 공동연구를 수락한 성 교수님과 함께 실험을 착수하였다. 복분자주의 항산화기능은 필자의 실험실에서, 항암기능은 성 교수 실험실에서 각각 실험하였다. 결과는 매우 고무적으로 나왔다. 비교 대상인 적포도주 4종과 비교할 때 결코 낮지 않은 항산화기능과 항암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만반의 준비를 끝낸 후 첫 번째 국제저널에 투고하였다. 하지만 투고한지 1주일 만에 '편집장의 결정'이란 제목의 편지에서 너무 지엽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어 자기네 학술지에 출판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약간의 보완을 거쳐 2번째 학술지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정식심사가 진행되어 2개월만에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이 또한 '채택불가'로 판정되었다. 심사자 2인이 공히 국제적 소재로는 학술지에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는 매우 화가 났다. 그제야 국내 연구자들이 왜 토종 식품소재물을 이용한 국제 논문 출력이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었다.

필자는 이렇게 복분자주의 연구내용이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은 국지적 소재라는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와인과 비교 실험되어서 서구 선진국 학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사실 서구의 와인은 수천 년의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연구결과가 수천 아니 수만 편 출판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굴복하면 미래의 연구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단단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했다.

노력끝에 얻은 결실

마지막으로 투고한 저널은 '식품농업 과학저널(Journal of the Science on Food and Agriculture)'이라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였다. 투고 후 1달이 지난 시점에서 편집자로부터 보충실험을 하라는 편지를 받았다. 보충실험이라? 이전 거의 '부결'이나 마찬가지로 판정으로 학계에서는 통상 보고 있다. 하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필자는 보충실험을 3개월에 걸쳐 시행하고 논문을 재송부하였다. 그 후 약 3개월이 지나 2인의 심사자로부터 2페이지

지가 넘는 수정의견을 받았고 그 답변서만 4페이지가 넘는 필자의 의견과 수정본을 보내 작년 여름 채택확정 통보를 받았다. 그 통보를 받기 까지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마지막으로 올해 3월 논문이 출판되었다.

감격, 그리고 다짐

약간은 감격스러웠고 약간은 좀 서러웠다. 많은 선배 연구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그들의 연구를 국제화시켰구나 하는 경의심도 들었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이다'라는 구호가 실현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실감하였다. 또한 근래 교수평가의 주 지표인 국제저널논문 출판이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독자들도 이해하기 바란다. 이제 복분자주 연구에 관한 국제화의 조그만 물꼬를 틀었다고 생각된다. 그 조그마한 물꼬에 큰 물을 대는 것은 미래 과학자들의 몫일 것이다. 공동연구자인 성교수와 필자는 어제도 저녁을 같이 먹으며 국제화할 또 하나의 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이번엔 잘 필까?

데, 학생증 교체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대의 경우, 새 학생증의 디자인을 학내 구성원에게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그리고 기존의 학생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내고 새 학생증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상세하게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특히 주거래은행(농협)과의 수수료율 협의와 복사기, 프린터의 사용 기능을 첨가한 것, 학교 근처의 각종 상점들에 대한 할인적용 등은 정말 유용한 기능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경우 특별한 기능도 없거나 단순히 학생증 교체 사실만 통보했지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필요한 부분을 개선했어야 옳았고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했지 않을까? 동국대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기능은 학내 매장들에 대한 할인기능이 부과된 학생증, 복사카드로 검증될 수 있는 학생증, 일산 불교병원의 진료카드와 결합할 수 있는 학생증이 아니었을까.

필자는 이 학생증을 가지고 졸업하겠지만 후배들은 좀 더 나은 학생증을 가지게 되길 기대한다.

동문칼럼

수령에 빠진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감옥이라 부른 봉하집을 나왔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노 전 대통령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범죄혐의로 전직대통령이 검찰에 불려나간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다.

물론 두 전 대통령과 범죄의 질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군부독재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인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혐의로 두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검찰에 소환된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고 씁쓸하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던가?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무리했다는 정치적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은 증거 제일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검찰의 몫이고, 범죄성립의 유무는 법관의 판단에 달려있다.

유·무죄를 떠나 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가족과 측근들의 나쁜 행동만으로도 해어나기 쉽지 않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 더 나아가 도덕적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평화,인권,부패청산 등 민주주의에대한 열정, 투기세력 원천봉쇄 같은 경제제도개혁의 가치까지 송두리째 부정해서는 결코 안된다. 그가 꿈꾸고 추진했던 성숙한 민주주의의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함께 공유할 시대정신이고 당위적 가치이다.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의 문을 닫겠다고 올린 글에서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라며 개인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시대정신의 가치를 분리해 바라볼것을 당부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다. 인간의 역사를 소유사(所有史)로 바라본 법정스님은 "우리들의 소유 개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뜰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며 무소유의 삶을 예언했다. 현재 권력을 쥔 사람들과 미래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이 새겨들을 만한 말씀이다.

바이오시스템을 위한 1일 Green Campus!
:: | 일 시 : 2009. 5. 15(금) 09:00 ~ 17:00
- 당일 전공 수업 대체, 교양과목 출석 인정서 발급
- 학교출발 : 5. 15(금) 09:00, 대운동장(관광버스 탑승)
- 점심 도시락 제공
:: | 장 소 : 국립수목원 (광릉)
:: | 대 상 : 바이오시스템대학 재학생, 교수 직원 전체 250여명(선착순)
:: | 주요 프로그램
- 특강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 - 김용하 박사(국립수목원장)
- 행운을 잡아라!
- 탐방로 견학
- 숲속 음악회 -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생각대로 Talk!
:: | 참가신청 : 5. 12(화)까지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 e-mail : wwwcom@dongguk.edu (학부/학과/전공, 학번, 이름, 연락처 기재)
- 직접방문 : 학생회실 (해화관 2층)
:: | 참가자 중 30명을 선발, 여름방학기간내 홍릉수목원 현장실습 기회 부여 (1학점 인정), 문화상품권, 뮤지컬 공연 티켓 시상
:: | 문 의 : 학사운영실 (2260-3306)
:: | 주 최 :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 학생회
:: | 후 원 : 국립수목원

학생기고

학생 없는 학생증

지난 2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학생증 교체를 통보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새 학생증은 사용이 불가능해진다고 한다.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땐, 기존의 학생증이 디자인과 기능문제 모두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했었기에 반가움이 앞섰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편의를 배려했다는 학교 측의 입장과는 달리, 공지된 새 학생증의 기능들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었고 심지어 예전엔 없던 불편함(?)이 가미되기도 했다.

대단한 기능처럼 광고했지만 T-money, 계좌입출금, 도서관출입, 좌석배정 등의 기능은 기존의 학생증에도 이미 있었던 내용이고 눈에 띄는 것은 전자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것과 체크카드 기능이 부가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점이 예전 학생증보다 오히려 더 불편해진 것처럼 여겨진다. 학생증이 체크카드화 되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학생증을 분실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실신고도 은행과 중앙도서관에 이중으로 해야 한다. 오히려 학생들의 불편만 가중된 셈이다.

이것이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면 그 점을 제외하고도 불만이 남아있는



김민서
국어교육과 3학년

보리수

칭찬의 즐거움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다. 블렌차드라는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가 쓴 이 책의 결론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험에 따르면 3톤이 넘는 범고래가 사람의 말을 잘 듣도록 하는 비결은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였다.

이를 '고래의 반응'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도 이 원리를 적용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가정과 직장 생활이 활기와 웃음이 넘친다는 것이다.

칭찬은 개인과 조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다. 말도 통하지 않는 동물도 칭찬으로 변화시킨다면 그보다 훨씬 더 감성적인 사람은 칭찬이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은 불문가지다.

실제로 칭찬과 꾸지람을 각각 다른 집단에 적용시켜보면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면 능률도 오르지 않고 성과나 품질도 좋지 않다. 반대로 격려와 칭찬은 자율적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동기를 유발해주고 신바람을 내게 하여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보면 보현보살은 온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 열 가지 서원을 세운다. 항상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며

(禮敬諸佛願), 모든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탄하며(稱讚如來願), 이웃을 위해 널리 공양을 베풀며(廣修供養願), 스스로 지은 업장을 참회하며(懺悔業障願),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며(隨喜功德願), 훌륭한 설법을 자주 청해서 들으며(講轉法輪願), 부처님과 같은 분과 늘 가까이 하며(請佛住世願),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常隨佛學願),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며(恒順衆生願), 모든 좋은 일은 널리 나누겠다(普皆回向願)고 약속한다.

한마디로 항상 남을 칭찬하고 기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남을 칭찬하면 나도 칭찬을 받게 되고, 남을 기쁘게 하면 나에게도 기쁜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누구든 행복해지고 싶거든 망설이지 말고 남을 칭찬하는 일부러 실천해야 한다. 보현보살이 세운 칭찬어래원(稱讚如來願)은 이 좋은 일을 내가 먼저 하겠다는 다짐이다. 남을 헐뜯는 데만 익숙한 우리로서는 쉽게 따라 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칭찬은 멕시코발 폐지독감보다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갖는 바이러스다. 누구든 감염되면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이런 즐거움 전염병이란 건 나부터 나서서 널리 창궐시키는 것이 좋다. 절대 손해날 일이 없다. 한번 해볼 만한 장사 아닌가.

세상돋보기



대답없는 메아리

지난 28일부터 박인우 문과대 학생회장이 독어문화학과 폐과를 반대하며 입학정원관리 시스템 폐지를 주장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금주의 식단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만두탕수, 치즈토가스, 푸짐불고기, 어린이날 휴무, 등유콩나물볶음, 치킨가스, 카레라이스, 우거지갈비탕, 팥문치킨, 토가스, 모듬볶음밥, 어육전골, 개고기념일 휴무)

상록원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갈비경단, 치즈토가스, 불고기소스볶음밥, 만두전골, 어린이날 휴무, 만두편동, 콩비가스, 콩김치볶음밥, 치즈볼우, 제육볶음, 토가스, 산채비빔밥, 닭곰탕, 기념일 휴무)

아리수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제육비빔밥, 참치김치덮밥, 어린이날 휴무, 치킨굴소스덮밥, 볶음콩나물비빔밥, 불고기비빔밥, 푸꾸미제육볶음, 개고기념일 휴무)



논단

4대 강 살리기일까, 죽이기일까

지난 4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동안 문제되었던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14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2009년 5월 말에 시작되어 2012년 말까지 진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수량 확보, 장마에 대비한 홍수조절 능력 향상, 수질 개선, 4대 강과 주변 지역을 정비하여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개발, 지역경제 발전을 실현 등이다. 4대강 정비사업의 목적은 단기적으로 현재 경제난 국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저CO2 사회 건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것이다.

정부가 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통해 효과적인 물 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물 관리와 함께 경제발전과 문화 포함 종합 발전 청사진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환영할만한 정책인 것이다.

반대자는 항상 존재?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부계획에 대해 일부 환경 사회단체들과 시민들도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반대자는 항상 존재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의 주장이 정부의 정책보다 대중적 지

지와 설득력을 갖는다면 이렇게 단정적으로 반대자들의 주장을 묵살할 수 있을 것인가?

물 부족 문제는 한국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현재, 가뭄과 홍수 등의 천재지변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물부족 현상은 지구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같이 6월부터 9월까지 강우량의 2/3이 집중되어 있고, 육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극히 짧은 지형의 국가에서는 하천 정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보와 댐, 저수지 등의 시설을 통해 수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만 한다.

거짓 4대 강 살리기

그런데 정부의 4대강 정비계획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4대강 정비 사업에 14조 원 이상 투입하면서 과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는가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이다. 게다가 현재 건설업 종사자들의 30% 정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며, 또한 대졸 청년 실업자들이 건설직종을 기피한다. 토목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노동의 양과 질 모두 그리 추천할만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정부는 아직 공급 중심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부족 문제는 전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수요가 아닌 공급중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즉 물 소비 감소를 위한 설비 보급, 홍보나 교육, 혹은 세금 증액 등을 통해 소비 절약을 유도해야만 하고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 계획에는 그런 내용은 전무하다. 여전히 토건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4대강 정비 계획은 분류(국가하천) 중심이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계획은 부재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류에서 분류로 오염물질이 유입된다면 분류를 아무리 정비한다 하더라도 오염문제는 항상 제기될 것이다. 또한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의 홍수는 분류에 비해 지류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 피해도 매우 컸다. 그러므로 지류, 소하천, 실개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하천 준설사업을 통해 수심을 약 1~6미터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과연 그렇게 까지 깊게 준설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특히 6미터는 2500 톤급의 운하바지선이나 다닐 수 있는 깊이이다. 이러한 깊이를 파는 준설공사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하천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준설작업을 하게 되면 주변 독에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수변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천 전체를 콘크리트로 공사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는 자연 하천이 아

닌 인공하천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운하에 대한 의구심을 전혀 떨쳐버릴 수가 없다. 총 공사비도 운하 건설비용과 같은 14조원이고, 특히 낙동강의 경우 6개의 보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강의 수심은 6미터가 되고 보 사이의 거리는 30Km가 된다. 이는 정부가 예초에 구상한 운하 1단계 건설계획과 동일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하 건설 포기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4대 강 정비 사업 도중에 국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운하 건설을 할 수 있다고 일부 정부 당국자들이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살리기가 되려면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나름대로 중요하며, 녹색성장과 저CO2 사회 건설의 실현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정부가 운하 건설을 목적으로 국민 전환을, 혹은 여론 무마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필연적으로 운하건설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과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또 다시 여론의 분열과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 국가발전은 고사하고 국가를 파국으로 내 몰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패, 혹은 실패한 이명박 정부로 규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4대강 정비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메아리

꿈을 키우는 이를 위하여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도는 1920년에 도입됐다. 우리나라보다 80년이 빠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는 인종, 성별 간 다양성 인정과 통합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입시에도 반영됐다. 입학사정관제도는 신입생 또는 장학생 선발 시 소수 인종과 여학생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현재 미국 대학은 규모에 따라 10여명부터 50~60여명까지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신입생 선발을 맡고 있다. 80년을 넘긴 미국의 베테랑 입학사정관제도지만 고액 사교육 시장 형성을 막을 순 없었다. 미국에는 입학사정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스펙을 장기적으로 기획·관리해주는 사교육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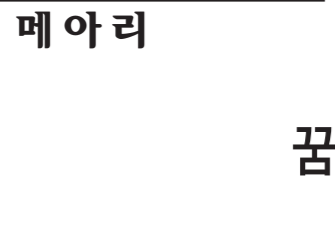
수험생의 에세이 작성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추천전형(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들이 지난 달 17일 한자리에 모였다. 입학처가 도입 첫해의 자기추천전형에 대한 보완점을 신입생들에게 들어보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작가로 활동하며 맞편의 책을 낸 학생, 영화제작을 경험한 학생 등 다른 학생과는 달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타의 신입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자기추천전형의 가장 큰 조언자는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말한다. 자신만의 소질과 적성을 알았던 학교 선생님의 권유가 자기추천전형에 응시 하게 된 계기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학원 수업, 학원의 입시전략이 먼저인 분위기와는 판이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40개 대학을 선정해 지난해보다 79억 원 늘어난 23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정원을 작년 입시계획에 비해 10~20배 이상 늘렸다. 이렇게 되면 2010년 입학사정관 전형의 규모는 60여개 대학 1만 5천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여기에 불청객이 끼어들었다. 집적이 가능한, 이들은 대학입시학원이다. 인·적성검사를 통한 스펙 쌓기부터 심층면접, 에세이 작성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살이 토실토실 오른 사냥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

를 벤치마킹했다. 더불어 입시학원도 입학사정관에 대비한 더욱 '진보된' 고액 사교육 프로그램을 가다듬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정원을 무작정 늘릴 수만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리한 정원 확대는 사교육시장에게 더 많은 허점을 보일 뿐이다.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교육과 더불어 학교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학생 자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학원에서 키운 수동적 꿈보다 동아리에서 키운 자신만의 열정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 신입생 모집에서 한 학생은 "꿈만 키웠는데 뽀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자신만의 꿈을 가진 청소년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이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정동훈 편집장 gfd1228@dongguk.edu



정동훈 편집장 gfd1228@dongguk.edu

사설

촛불 1주년, 그리고 대학생

촛불시위가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시민들은 종로를 비롯해 전국을 촛불로 지새웠다. 혹자는 배후세력을 논하고 경제적 손실을 얘기한다. 그러나 촛불시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배웠다.

보수언론은 촛불시위 1년을 평가하며 일부의 과격한 시위와 경제적 손실만을 얘기한다. 보수 진영은 촛불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봉착하게 했고 종로 일대의 교통마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조원에 이른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보수언론들은 지난해 4월29일 방영된 MBC 광우병 편이 사실을 왜곡 날조함으로써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어 촛불집회를 초래했다며 선동 혐의를 씌우고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의 모습이 과연 그것 만이었을까. 촛불시위는 토론장이었고, 이름 모를 가수의 공연장이었고 또 하나의 교실이기도 했다. 고등학생들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배웠고, 저마다 생업에 종사하던 이들은 다짐 "연대"를 되새겼다. 촛불시위에는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고 그 못지않은 웃음이 있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기도 했다. 촛불을 든 이들만큼 온라인을 통해 시위를 지켜보고 참여하던 이들도 있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사이버 시위로 서비가 다문되기도 했다. 촛불시위를 통해 활성화된 블로그는 1인 미디어로 탄생해 새로운 콘텐츠의 바다를 이뤘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각 대학 깃발을 선두로 삼삼오오 모인 대학생들은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외쳤다. 2008년 6월 10일, 광화문 사거리는 50만 명 이상의 촛불이 모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응서를 구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촛불은 사그라졌고 정부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대학생들에게 등록금부담은 여전히하고 경제위기 속 취업 부담은 대졸자의 몫이다.

정부는 자율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대학의 편의만을 제공했다. 경제위기의 부담은 함께 지어야할 속제임에도 말이다.

그리고 언론장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이미 촛불시위에서 우려됐던 일들은 현실이 되고 있다. 대학생, 그리고 촛불이 살아 숨 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자의 삶과 목표가 중요한 만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평

정명근 gmg@naver.com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동훈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성적우수장학금, 모범장학금 분리 시행 안내

1. 변경취지 : 기존의 성적우수장학금을 성적우수장학금과 모범장학금으로 분리하여 시행 함으로써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는 장학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2. 성적우수장학금
가. 신청방법 : 성적을 100% 반영 하여 석차순에 의해 선발을 하므로 별도의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나. 선발인원, 장학금액 : 단과대학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 함
다. 자격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 12학점), 평균평점 3.0이 상인 자
2) 2009-2학기 복학예정자는 제외

3. 모범장학금
가. 대상 : 대학별 특성에 맞는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해당 대상자를 선발 함
나. 선발인원, 평가기준, 장학금액 : 단과대학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 함
다. 신청방법 : 대학별 안내사항 참조
라. 신청기간 : 2009.5.15(금)~5.29(금)

Table with 3 columns: 구분, 현재, 변경. Rows include 성적우수장학금, 모범장학금, 인원, 선발방법, 금액.

Table with 4 columns: 대학, 성적우수장학, 모범장학, 기타. Lists various universities and their scholarship details.

* 추후결정 예정인 대학은 해당대학 학사운영실에 확인 요망

5. 시행시기 :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09-1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2009-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 지급 됨)

6. 기타 :
가. 성적우수장학금과 모범장학금은 중복지급이 불가능 함. 이중수혜 대상인 경우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음.
나. 미등록 휴학생의 장학금(교내장학)은 복학 시 이월하여 지급이 가능 함
다. 전과신청자의 장학금은 전과를 희망하는 단과대학의 선발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영어강좌별 우수장학 신설 안내

2009-2학기 영어강좌별 우수장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취지 : 영어강좌 수강을 독려하고 장학금지급을 확대하여 학업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2. 장학명 : 영어강좌 우수장학

3. 장학금액 :
가. 강좌 당 수석 : ₩300,000
다.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나. 강좌 당 우수 : ₩150,000

4. 대상 : 영어강좌별 수강인원의 10% 이내

< 제외대상 >
가.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 강좌

강좌별 수석장학 시행 안내

2009-2학기 강좌별 수석장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장학명 : 강좌별 수석장학

2. 장학금 : 1인당 ₩150,000

3. 수여대상 : 매학기 강좌별(전공, 교양) 우수한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지급 함. (단,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 PASS과목, 교육실습, 현장실습, 타대학(분교포함) 소속 대학생, 8학기 이상인 자는 제외 함)

4. 자격기준 :
가. 강좌별(전공, 교양) 우수자 1명
나. 1인당 3강좌까지 지급 가능 함
다. 4학년(8학기) 재학생은 제외
라.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 함
라.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다.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5. 선발방법 : 성적인력 시 대상자 선발 함
6. 지급방법 : 등록금에서 감면처리되어 지급 함

2009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1. 훈련대상 : 대학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자
* 전역 1~6년차 예비군 ('2008년도 ~ '2003년도 전역자)

2. 훈련일정

Table with 8 columns: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Lists training dates and locations.

* 각 단과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통합되거나 변경된 대학 및 학과는 입학 당시의 대학 또는 학과의 훈련 일정에 참석하면 됩니다

3. 훈련장소 : 56사단 219연대 종로·중구 훈련장

4. 복장 : 예비군복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장, 허리띠)

5. 휴대품 : 신분증 필히 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등)

6. 참고 및 유의 사항
가. 교육훈련은 09:00에 시작하여 18:00에 훈련 종료

나.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로 나와서 북한산 방향으로 200m 지점에서 34번 버스탑승(버스요금은 학교에서 조치함 : 승차 시 신분증 제시)

- 08시20분 이전까지 도착하여 버스 탑승 (지연 도착자 버스지원 불가)

다. 개인 자가용 운행가능(주차장 완비)
- 09시 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 (위병소 통제)

라. 예비군복착 1가지라도 미착용 또는 불량자는 입소불가

마.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필히 지참
바. 개인명단 확인/상세문의: 예비군 연대본부 및 각 대학 학사운영실

☛ 훈련전일 지나친 음주는 가급적 자제
동국대학교 직장에비군 연대
(예비군 연대본부 : ☎ 2260 - 3047 ~ 8)

선재스님에게 들어보는 사찰음식 이야기

혀가 싫어도 몸이 원하는 '사찰음식'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 운동에 사찰음식을 포함하면서 사찰음식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 또한 웰빙 식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인공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조미료 및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요리한 건강식품인 사찰음식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

이번 문화면에서는 인스턴트 식품 속에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음식이자 건강식품인 사찰음식에 관하여 소개한다.

사찰음식이란?

경전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일체의 제법은 식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식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19세기 프랑스의 한 음식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다면, 나는 당신의 성격, 취미, 생각, 습관, 등을 읽을 수 있다.' 이 말들은 모두 한 인간에게 있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 일찍이 절에서는 음식 만드는 일을 수행의 하나로 생각했다. 음식을 만드는 일에서 음식을 먹는 일까지, 도를 닦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가르치고 배웠다. 사찰음식은 선식, 즉 정신을 맑게 하는 음식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사찰음식은 음식의 맛, 기쁨의 맛, 기의 맛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준다. 음식의 맛이란 식품 그 자체가 주는 맛이고, 기쁨의 맛이란 음식으로 인해 마음이 기뻐지는 것으로서, 그 기쁨으로 음식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 기의 맛이란 비로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맛이다. 사찰음식은 이 세 가지,

즉 음식의 맛, 기쁨의 맛, 기의 맛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의 맛을 갖는 사찰음식은 정적인 음식이다. 정적인 음식을 먹으면 밖으로 표출되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충실해진다. 반대 개념인 동적인 음식은 불교에서 금하는 오신채, 육류, 어패류,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밖으로 뻗는 힘이 강해져서 정서의 동요가 쉽고 성격이 과격해지며,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사찰에서 수행자들이 먹는 사찰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일은 식욕에 집착하여 맛을 즐기지 위함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데 필요한 수행과정의 하나인 것이다.

사찰음식의 특징

사찰음식의 특징으로는 오신채와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오신채란 다섯 가지 냄새가 나는 채소로 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를 말한다. 농업경에서 수행 중에 이 다섯 가지 채소를 익혀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더한다고 설파하고 있어 사찰에서는 오신채의 사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또한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교리에 맞춰 사찰음식에는 육류의 사용이 금지된다. 육류의 사용 금지로 인해 사찰에서는 채식음식이 발달했으며 사찰음식의 재료로는 산나물, 들나물, 뿌리채소, 버섯류, 나무열매나 직접 가꾼 채소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사찰음식에는 깨미취, 수리취, 잔대순, 다래순, 참죽, 재피, 땅초, 엉겅퀴나물 등 다양한 산나물 요리가 있다.

한편, 사찰음식은 인공조미료를 쓰지 않고 자연 재료로 만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낸다. 천연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품으로는 버섯가루, 다시마가루, 재피가루, 밤아 잎, 들깨가루, 콩가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불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찰음식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불가의 먹거리 지혜가 담겨 있다. 매년 먹거리 파동으로 불안해하는 현대인에게 자연 그 자체만으로 맛의 독특한 경지를 이룬 사찰음식이 큰 위료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약으로서의 사찰음식

'사분율'에서 설명하는 네 가지 식생활 중 중요한 것은 제철의 음식을 먹는 것이다.

경전 '금광명최승왕경'에서는 봄에는 가래와 심화병, 여름동안에는 풍병, 가을에는 황열, 겨울이면 세 가지 병이 한꺼번에 나니, 봄에는 뽕고 뜨겁고 매운 음식, 여름에는 미끈미끈하고 뜨겁고 짜고 신 음식, 가을에는 차고 달고 미끈미끈한 음식, 겨울에는 시고 뽕고 미끈미끈하고 단것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사분율'에서는 육식을 절제하는 것을 권했다. 육류는 채소보다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육식을 먹을 때에는 두 배의 야채와 함께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선재스님과 사찰음식

선재스님은 현재 서울 안암동 보타사의 주지 스님으로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을 통해 사찰음식 연구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우리대학에서 사찰음식 강좌를 맡고 있다.

선재스님은 사찰음식에 대하여 "사찰음식은 생명, 건강, 도(지혜)를 얻기 위한 약이 되는 음식"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찰음식은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음식이기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음식이라고 한다.

또한 선재스님은 인스턴트 식품을 길들여진 요즘 아이들에게 입에 맞았는 음식보다 자연의 맛 즉, 자연에서 자란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을 먹으라고 권한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옛말처럼, 입에 맞았는 음식보다 쓰지만 몸에 좋은 자연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다.

이정민 jeong0424@dongguk.edu

누구나 할수있는 초간단 사찰음식 요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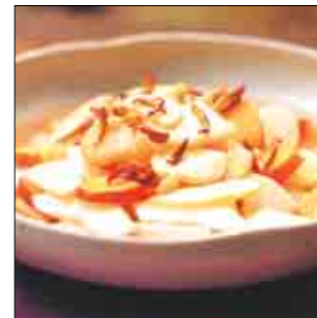
1. 삼색 밀전병 동치미 국수



치자 밀전병(밀가루 1컵, 소금¼작은술, 치자물 1컵), 시금치 밀전병(밀가루 1컵, 소금 ¼작은술, 시금치 간 것 1½큰술, 물 1컵), 비트 밀전병(밀가루 1컵, 소금 ¼작은술, 비트 간 것 1큰술, 물 1컵), 동치미 국물 적당량, 홍고추 1개, 식용유 · 설탕 · 식초 약간씩

1. 치자는 반으로 쪼개 물에 담가 색을 내고, 시금치는 물을 조금 넣고 믹서에 간다. 비트는 강판에 간다. 체에 내린 밀가루를 3등분하고, 각각 분량의 물과 소금, 채소즙을 넣어 거품기로 잘 젓는다. 부치기 1시간 전쯤에 반죽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2. 홍고추는 곱게 채썬다. 식성에 맞춰 동치미 국물에 설탕과 식초를 더한다.
3. 약한 불에서 팬을 달궈 기름을 조금만 두른 뒤 반죽을 국자로 떠넣어 얇게 부친다. 표면이 말갛게 되면 뒤집어 마저 익힌다. 기름을 많이 두르거나 센 불에 부치면 딱딱해지므로 주의한다. 완성된 밀전병은 찬반에 겹치지 않도록 놓아 차게 식혔다가 접어서 곱게 채썬다. 이때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면 더 쫄깃하다.
4. 그릇에 색색의 채 썬 밀전병을 담고 홍고추를 얹은 후 동치미 국물을 부어 낸다. 여름에는 동치미 국물 대신 오이 냉국을 만들어 말아 먹어도 별미다.

2. 과일 잡채



치자 밀전병(밀가루 1컵, 소금¼작은술, 치자물 1컵), 시금치 밀전병(밀가루 1컵, 소금 ¼작은술, 시금치 간 것 1½큰술, 물 1컵), 비트 밀전병(밀가루 1컵, 소금 ¼작은술, 비트 간 것 1큰술, 물 1컵), 동치미 국물 적당량, 홍고추 1개, 식용유, 설탕, 식초 약간씩

1. 참외, 복숭아, 천도 복숭아는 깨끗이 씻어 껍질째 나박썰어 설탕을 조금 뿌려 살짝 절인다. 밤은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저미고, 대추는 돌려 꺾어 채썬다.
2. 국물의 재료인 배즙, 오미자 우린 물, 꿀, 발효 겨자, 생강즙, 식초를 잘 섞어둔다.
3. 큰 그릇에 손질한 과일을 돌려 담고 국물을 부은 후 채썬 밤과 대추, 잣을 뿌려 장식한다.

3. 수박 주스 · 수박 잼



수박 · 설탕 적당량

1. 잘 익은 수박의 속을 손가락으로 긁은 후 베보에 내려 국물만 받는다. 냉장고에 넣어 차게 해서 먹는다.
2. 수박은 껍질질을 벗겨내고 흰 속껍질만 잘게 썰어, 수박 주스를 내고 남은 건지와 섞는다.
3. 냄비에 ②와 ②의 ½분량의 설탕을 넣고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며 은근한 불에 조려 수박 잼을 만든다.

이정민 jeong0424@dongguk.edu

채현선 작가의 세상 느끼기

3. 다행이다



©(O)littliche@dongguk.edu

어느 날, 봄처럼 그녀가 내게로 왔다.

그녀를 만난 곳은 지하철 환승역 계단이었다. 팔다리가 뒤틀려 온전한 구석이라곤 없어 보이는 그녀와, 그녀가 등에 업은 아기 알을 지날 때면 나는 눈을 꼭 감았다. 그녀가 등 뒤로 떨어져 이미 보이지 않는데도, 수많은 감정의 그림자가 오랫동안 내 안을 휘저으며 떠다녔다. 한 번도 그녀에게 다가가 돈을 건넨 적도 없다. 나는 나의 설부른 동정이 부끄러웠고 그걸 이길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차라리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 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그림에도 나는 늘 그녀와 아기의 안부가 궁금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돌

보며 어디서 지내는지. 얼마 전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나고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늦은 밤, 환승역 계단은 고요하고 적막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스산하고 고요한 세계로 나를 불러들인 것이 그녀였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녀가 보였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선 채로 눈만 껌뻑거렸다. 그녀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 몸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었다. 뒤틀렸던 몸은 멀쩡하게 돌아와 있었고 팔다리가 위태롭게 흔들리지도 않았다.

"자, 집에 가자."
그녀가 등에 업은 아기에게 말했다. 순간 가슴 한편을 떠돌던 돌덩이 하나가 속 내려앉았다. 배신감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쩌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밥을 짓고 원장찌개를 끓일 것이다. 입을 움질거리며 보채는 어린 자식에게 따뜻한 국물을 떠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결코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일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데. 고맙웠다. 그녀가 멀쩡한 몸이라는 사실이.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내 마음을 건넸다.

"두부, 사가세요"라고 그녀가 내 마음을 자신의 주머니에 받아 넣었다.

나는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행이다. 당신과 당신의 아기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따뜻한 국물을 먹을 수 있어서. 봄날의 행복한 꿈처럼 당신과 당신의 아기가 웃을 수 있어서. 비로소 당신에게 내 작은 마음을 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연극, '손속의 어머니'



연이었던 연극배우 손속이 20년간 어머니 역으로 출연할 것을 약속해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또한 이번 공연은 '손속의 어머니'가 공연된 지 1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해 올리는 작품이다.

'손속의 어머니'에서는 일제시대와 6.25를 거처 온 우리네 어머니들의 생활상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그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성의 공연으로 노년시대에는 공감을, 젊은 세대에는 구전으로만 들어오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곱씹을 경감도 사무리리 전개되는 입심과 유머감각, 특유의 애절한 연기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현실과 비현실, 이승과 저승, 산 자와 죽은 자가 한 데 어울려 전개되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입체적인 무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다. 연극은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문의는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2260-8901)으로 하면된다.

이정민 jeong0424@dongguk.edu

제47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나는 지금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간다

- 시상 : 2009.5.16(토) 15:30
- 장소 : 본관 중앙당(본행사), 상록원(만찬)
- 참가비 : 100,000원
- 문의 : 동국대학교 대외협력단 (02)2260-3300, 3794-5, FAX: (02)2260-3796

행사 프로그램

- 식전행사 (발정도 주변 15:30-16:00)
 - 전시회 관람 (79학번 졸업앨범, 그림, 만화 등)
 - 도서할인 판매 (동국대학교 출판사업팀 발간 책자)
 - 포토존 관람 및 사진 촬영 (70-80년대 추억의 사진 등)
- 본행사 (중앙당 16:00-17:00)
 - 동문대상봉 기념식
 - 동아리 축하공연(SSID, 백상응원단)
- 단체 기념사진 촬영 (17:00-17:30)
- 만찬 (상록원 17:30-19:30)
 - 만찬 및 기념공연 (사회: 김종석)

문의: 동국대학교 02-2260-8773

입학 30주년 79학번 동문 재상봉 행사

올해로 입학 30주년이 되는 79학번 동문님을 모교로 초대합니다.

꿈과 추억이 곳곳에 묻어 있는 모교를 방문해 당시를 회상해 보고 모교의 현재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사 개요

- 일 시 : 2009.5.16(토) 15:30
- 장 소 : 본관 중앙당(본행사), 상록원(만찬)
- 참가비 : 100,000원
- 문 의 : 동국대학교 대외협력단 (02)2260-3300, 3794-5, FAX: (02)2260-3796

행사 프로그램

- 식전행사 (발정도 주변 15:30-16:00)
 - 전시회 관람 (79학번 졸업앨범, 그림, 만화 등)
 - 도서할인 판매 (동국대학교 출판사업팀 발간 책자)
 - 포토존 관람 및 사진 촬영 (70-80년대 추억의 사진 등)
- 본행사 (중앙당 16:00-17:00)
 - 동문대상봉 기념식
 - 동아리 축하공연(SSID, 백상응원단)
- 단체 기념사진 촬영 (17:00-17:30)
- 만찬 (상록원 17:30-19:30)
 - 만찬 및 기념공연 (사회: 김종석)

문의: 동국대학교 02-2260-8773

중앙도서관 영화상영회 5월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상영회를 개최하오니 동국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기간: 2009.05.04 ~ 22(토·일요일,공휴일 제외)
2. 일시: 월 ~ 금요일, 14:00~
3. 장소: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발전 AV실
4. 상영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등 13편

테 마	날짜	영화 / 감독	국가	런닝타임
노동자의 날, 임술한 시대, 노동자들의 삶	4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박광수	한국	96분
	6일	황도원 / 피에르토 제르미	이태리	118분
	7일	제르미날 / 폴로드 베리	프랑스	170분
석가탄신일,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11일	리틀부다 / 베르나르도 베루틀루치	미국	140분
	12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 배용근	한국	175분
	13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 김기덕	한국	106분
	14일	화엄경 / 장선우	한국	126분
스승의 날, 사제시간, 따뜻한 향기가 나는 영화	15일	아제아제 바라아제 / 임권택	한국	134분
	18일	죽은사인의 사회 / 피터위어	미국	128분
	19일	꽃피는 봄이 오면 / 류정하	한국	128분
	20일	출판도 오빠스 / 스테판 헤케	미국	130분
21일	무지 오브 하트 / 웨스 크레이븐	미국	124분	
22일	굿윌 헌팅 / 구스 반산트	미국	126분	

5. 관람방법: 직접방문, 안내자료 수령 후 관람(무료)
6. 문의: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02-2260-3452)
* 영화 소개 자료 및 음표수 제공
* 상영영화는 멀티미디어실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중앙도서관